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47호



638 <영어+ 24개 국어 자막>

## 자신을 최대한 발휘하라

1998. 10. 4.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이 DVD에서 스승님은 수행과 일상생활 양쪽에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다루셨다. 예를 들어 독신 생활에 대해 “독신 생활은 일종의 특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설명들도 실려 있다. 전세계적인 재난 및 빈민 구호 활동에 대해 스승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도움을 베푸시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수행의 진보에도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성은 어떤 특질 때문에 성불하기 쉬운가? 이 외 결혼 관계와 사회생활에 관한 스승님의 멋진 말씀은 동수와 일반 대중 모두가 감상할 만하다.



CD-EG147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9)

## 위대함은 자신의 이상을 따르는 것

2001. 4. 18, 21, 25. 스승님과 장주들과의 만남/ 미국 플로리다 센터

광대한 바다를 모터 보트를 타고 누비고 아일랜드에서 ‘천상의 맛’을 가진 크리스마스 푸딩을 맛보았던 스승님의 멋진 경험에 대해 듣고 싶지 않은가? 이 CD에서 스승님은 생애 중 겪은 웃기고 흥미진진한 일화들과 재미있는 농담을 얘기해 주셨다. 또한 당신이 직접 경험하신 부동산 광고의 함정에 관한 말씀은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이 외에도 스승님은 세계 각지 순회강연을 하시는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전세계 단체명상에 참석하는 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이 재미있는 애깃거리가 풍부한 이 CD를 놓치지 마시길.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MP3-CR13 <중국어>

## 임종시 깨달은 스승에 대해 떠올리면 즉각 해탈한다

1992. 4. 3-5. 포모사 시후 센터 선사

### 주요 내용

1. 선 행사의 공덕.
2. 진선미의 전형-감로강
3. 에고는 칭찬을 좋아한다.
4. 두려움이 윤회를 낳는다.
5. 신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
6. 아시아 순회강연 소감 발표.
7. 임종시 깨달은 스승에 대해 떠올리면 즉각 해탈한다.





**앞표지 안/ 56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MP3/ VCD

**2 칭하이 데이 10주년 특별 보도**

**8 다채로운 이벤트**

뉴질랜드/ 태국/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미국

**16 행사 메모**

**17/ 43 스승님의 농담**

배심원의 비밀/ 신랑의 뜻밖의 대답/ 하찮은 사람의 자격이 없다

**18/ 뒤표지 무상예술**

천국의 영감-천상의 보석에 담긴 오묘한 의미/ 2003 S.M. 추동복 컬렉션

**26 관음 가족**

로빈 이야기: 한 영혼의 갈망

**27 영원의 찰나**

별들에게 귀기울여 봐

**29 지혜어록**

무덤은 죽은 자의 집이 아니다

**30/ 41 골라 뽑은 수행문답**

명상으로 수행의 길을 밝히자/ 모든 행위에는 영적인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1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위대한 힘으로 어머니의 시력이 회복되다

**31/ 33/ 53/ 55 감로벌어**

**32 이야기 세상**

마(馬) 아저씨 이야기

**34 제일선에서**

잊을 수 없는 루마니아 순회 흥법/ 천국의 은총, 인간의 사랑-진면 흥법 활동

**38 채식 시대**

2003 세계 채식 박람회: 자비로운 삶의 방식을 알리자/ 맛과 멋이 풍성한 태국 채식 음식전

**4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우주 보상(補償)의 법칙

**44/ 52 사랑의 실천**

대한민국/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오하이오

**49 감사 편지**

**51 매체 보도**

부산일보

**57 사이버 시대 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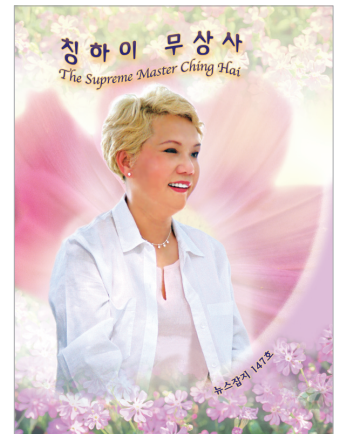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는 라디오·인터넷 방송

**58 관음 웹사이트**

**59 전세계 연락처**

**64 시**

당신은 사랑의 바다



먼저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뒤따를 것입니다. 성과가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명상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십시오.

~칭하이 무상사~

출판일자 : 2004. 4. 3.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7호**





## 칭하이 데이 10주년 특별 보도



### 페루

## 휘황찬란한 ‘칭하이 달’

페루에서는 10월에 경축일이 많기 때문에 10월은 매우 의미가 깊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들에게는 10월 25일 칭하이 데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뜻 깊다.

이 의미 있는 날을 경축하기 위해 리마 동수들은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차이나타운 페어’에 참가해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많은 방문객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호기심과 반가움을 표했다. 리마 센터 동수들은 센터의 위치와 방문 가능 일자, 시각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인쇄물을 나누어 주고 10월에 있을 비디오 강연회를 알렸다.

이 성공적인 행사에 이어 동수들은 10월을 페루 ‘칭하이 무상사의 달’로 만들고자 여러 도시에서 다섯 차례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번째 강연회는 10월 11일 토요일 타크나 시의 드라이버스 유니온에서 개최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사람들은 견본책자 선물을 기쁘게 받았으며 ‘이 세상 너머의 신비’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하였다. 많



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완벽한 진리의 말씀에 수긍했으며 1/3 가량이 남아 방법법을 배웠다.

그후 사랑이 많은 여자 불교 신자가 동수들을 집에 초대해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단체명상 장소로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타크나에 명상 센터가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 비디오 강연회는 10월 15일 아레키파 시의 산 오거스틴 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100명이 들어가는 이 강연장은 열렬한 분위기 속에 곧 만석을 이루었다. ‘이 세상 너머의 신비’를 상영하는 동안 손님들은 스승님의 목소리에 빠져들고 스승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큰 관심을 보여 반 이상이 방법법을 신청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지역 잡지사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가 다음날로 잡히게 되자 손님들은 비디오를 다시 한 번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체험담을 함께 나누었다. 체험 발표 시간은 대단히 상서롭고 만족스러웠다.

10월 25일에는 리마 시 국립 도서관에서 세 번째 강연회가 열렸다. 300여 석 규모의 넓은 도서관 대강





# 칭하이 데이 10주년 특별 보도

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다. 먼저 비디오 상영을 통해 스승님의 목소리와 가르침이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그후 백여 명 정도가 방편법을 전수받고 기뻐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내면의 경지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 신사는 작업 팀에게 이번 강연회 참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확실히 밝아졌다고 하면서 강연회 주최자에게 감사해했다. 다음으로 동수들은 도서관 대기실에서 맛있는 채식 뷔페를 제공했다. 내빈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스승님의 창작 가곡들을 감상했다. 강연장 전체에 스승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며 모두의 얼굴엔 찬란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지막 두 차례 비디오 강연회는 프락 시 산 호지 교도소에서 10월 30일과 31일에 열렸다. 교도소 당국에선 동수들에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후 재소자들은 명상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200여 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방편법을 배운 재소자들은 전보다 평화롭고 밝아진 듯했으며 동수들에게 보람에 한 번씩 교도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페루인들은 10월을 '기적의 달'이라고 칭한다. 신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홍범 순회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 축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 주었으니 올해 10월은 페루 동수들에게 기적의 달임에 틀림없다.



리마와 아레키파 작업 팀.

## 중국 본토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축복이 실현될 것이며

모든 아름다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당신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 온물이 언제나 고이 간직되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음의 참뜻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눈이 세계를 영원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칭하이 데이를 경축하며~

본토 제자들 올림





# 칭하이 데이 10주년 특별 보도



카메룬

## 두알라 센터의 첫 번째 칭하이 데이 경축 행사

2003년 10월 25일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의 두알라 센터 동수들은 처음으로 칭하이 데이를 경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동수들은 센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각 지방에서 온 손님들과 이 특별한 날을 함께 보냈다. 참석한 방편법 수행자와 입문자들은 노래와 시 낭송으로 스승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또 비디오를 상영하는 동안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에 매료된 손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나타내며 많은 심도 깊은 질문들을 던졌다. 동수들은 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일어난 일상생활의 변화를 손님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카메룬 동수들의 사려 깊은 대답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밖에 마련된 채식 뷔페는 모두의 환영을 받았으며, 일부 사람들은 채식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고 요리 법도 배워 갔다. 행사는 당초 계획보다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이 무렵은 원래 우기였기 때문에 동수들은 비가 올까 봐 우려했으나 하루 종일 날씨가 화창해서 모두들 놀라워했다! 비는 행사가 끝난 후 밤늦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줄기차게 내렸다. 이에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의 안배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스승님께서 행복한 칭하이 데이를 맞이하시길 기원했다!



다음은 스승님께 바치는 노래이다.



당신은 감미로운 바람  
나의 삶 속에 불어와  
나의 먼지들을 씻어 주시죠.  
당신은 아침의 태양  
우리 가슴을 뽕뽕하게 만드시고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죠.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죠.

당신의 반짝이는 눈동자는  
평화를 전해 주시고  
달콤한 미소는  
희망을 되찾아 주시죠.  
어머니 중의 어머니  
그 어떤 어머니보다 위대하신 분.  
오, 칭하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 칭하이 데이 10주년 특별 보도

포브사 타이베이

## 즐거운 개관식과 칭하이 데이 경축 행사

1993년 10월 25일 미국 정부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공로를 기려 칭하이 무상사에게 명예 시민권과 함께 세계 평화상을 수여하고 10월 25일을 '칭하이 데이'로 선포했다. 칭하이 데이 10주년을 맞은 2003년 10월 25일 타이베이 동수들은 새로 문을 연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의 성대한 개관식을 준비해 센터의 공식 개관을 축하하는 한편 '평화의 빛'이 온 우주로 뻗어 나가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이 지구에 가득 퍼지기를 기도했다.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의 전시벽은 아름다움과 심오한 영적 의미들로 빛을 발했다. 그 중 '연꽃 발자취를 따라서'는 지난 10여 년

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담겨 있다. 스승님의 예술 창 작품 전시회 역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선을 확 사로잡는 멋진 글과 그림은 깨달은 성인의 내적 재능은 가늠할 길이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 밖의 전시물에는 영성과 세계 평화 방면에서 스승님의 무수한 업적에 대한 자료와 깨달은 스승의 인류를 위한 자비원력과 위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개관식 날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은 유난히 기쁨이 넘쳤으며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천의, 천상의 보석 전시실은 그 찬란함과 우아함으로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스승님의 각종 출판물이 전시된 경서실도 멋지게 장식돼 내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건강 음식 부스는 맛있는 채식 음식을 제공해 손님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한 노부부는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지그시 바라보며 대중들의 허심탄회한 마음을 대신 전했다. "칭하이 스승님은 대지의 자애로운 어머니 같아요. 그녀의 빛나는 눈은 우리를 굽어보며 행복의 에너지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가슴에 파사로움이 흘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며 굉장히 포근하고 푸근해요!" 센터가 입주한 금은쌍성 빌딩의 이웃들도 손님을 대접하는 동수에게 묻곤 했다. "여기는 마치 천국처럼 아무런 경쟁의 느낌도 없이 평화롭군요. 매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이 그림들을 보







## 칭하이 데이 10주년 특별 보도



리 와도 될까요?” 이  
러한 질문은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의 다목적 기능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에 동수들은 센터 개방 시간을 알려 주는 한편 사랑  
의 바다 예술 광장 웹사이트를 방문하라고 권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포모사 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 입법원 도서관장인 구민 씨는 개관  
기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의 바다 예  
술 광장은 단순히 예술 센터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  
거움과 편안함을 안겨 주는 영성의 공간입니다. 칭하  
이 데이에 맞춰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속의 사랑을 펼쳐 나가도록 합시다!” 이어서  
금은쌍생 빌딩의 리우 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을 임대하기 전 먼지만 쌓이고 텅텅 비어 있던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고 다채롭습니까. 참으로 즐거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소란스러울 것을 걱정한 입주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보니 다 기우였습니다. 모두들 서로 돕  
고 협력하는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룡황 라  
이온스 클럽의 우샤오란 회장은 이어진 축하에서 “칭  
하이 무상사는 사람들의 영성과 삶의 질을 높인 큰스  
승이십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신적 스승이시  
기도 하죠. 오늘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의 개관은 세  
계인을 축복하는 스승님의 또 다른 공덕입니다. 예술 광

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  
복이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라고 말했다.

2003년 1월 타이베이 시 사회교육관에서 열린 스  
승님의 예술 작품전에서 스승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선(禪) 시인인 양핑 선생은 스승님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찬탄했다. “오늘 예술 광장의 전시벽에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는 큰스승의 수많은 노고를 읽었습니  
다. 이러한 성인의 발자취는 여러분 관음 가족의 일원  
만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게 아니라 일반 대중 모두가  
올바로 이해해야 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큰스승  
의 사랑과 헌신, 결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바다 예  
술 광장의 전시물을 통해 사회 대중들이 칭하이 무상  
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  
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만 사범대학 영어과 프랭크 스티븐슨 교수는 평소  
명상과 수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날 센터까  
지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영성을 고양시키는 스승님  
의 명상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동수들에게 관  
음법문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었다. 또  
한 많은 내빈들이 방편법을 신청하기도 했다.

멋진 시작을 알린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의 칭하  
이 데이 개관식은 일반인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예  
술 창작품을 접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고정적인 채널이 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장주 성인(聖人)의 다음 말처럼 말이다. “스승님의 사  
랑을 사람들과 나누고 천상의 진선미를 이 세상에 구  
현하여 모든 방문객들의 심신과 영혼을 고양시키도록  
합시다.”

사랑의 바다 예술 광장 웹사이트: <http://www.loveocean.org>



## 포모사 정후

평후 센터는 올해 특색 있는 칭하이 데이 행사를 마련했다. 센터는 스승님의 비디오 상영 지역과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 전시, 채식 음식 코너, 야외 식사 지역 등 네 곳으로 나뉘었으며, 동수들의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홍콩

홍콩 동수들에게는 매년 칭하이 데이를 경축하는 것이 연례 활동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때마다 동수들은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되살리곤 한다.



## 코스타리카

아름다운 '무상(無上)의 날', 동수들은 친구, 친척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호세 센터에서 칭하이 데이를 보냈다.



## 캐나다

캐나다 동수들은 칭하이 데이를 맞아 스승님께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한편 즐거운 경축 행사와 멋진 공연을 통해 칭하이 데이를 경축했다.



## 미국

칭하이 데이에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의 170여 명 동수들은 뉴저지 센터에 모여 신이 행사를 치르고 칭하이 데이를 경축했다. 동수들의 가슴에는 스승님의 축복과 평화, 행복이 가득 찼다.

오하이오 동수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조출한 칭하이 데이 경축 행사를 치렀다. 1993년 10월 25일 스승님의 수상 과정과 스승님께 올



해 칭하이 데이를 축하드리는 이메일을 낭독한 후, 스승님의 사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칭하이 데이를 축하하는 글이 씌어진 맛있는 케이크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





## 뉴질랜드 소식

### 천상의 섬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다

[오클랜드/해밀턴] 멋진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질랜드는 ‘길고 흰 구름의 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천상의 섬에 영혼을 고양시키는 스승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것은 완벽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9월 27일과 10월 4일, 12일 오클랜드 센터와 해밀턴 센터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세 차례 개최해 매번 강연회마다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오클랜드에는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중국어 강연회를 한 차례 준비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시청한 후 큰 감동을 받고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비디오 강연 중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은 다음 주말에 예정된 방편법 전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일 저녁 연락인의 집을 찾아가 방편법을 배우기도 했다.

두 번째 강연회에서는 한 인도인이 행사 공고가 실린 신문을 들고 찾아와 접수대에 자신이 제대로 강연장을 찾은 건지 초조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 밖에 살고 있었던 그는 우연찮게 친구에게서 이 신문을 선물받았다고 한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절묘한 안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현재 입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비롯해 2/3 이상이 강연이 끝난 후 방편법을 배웠다.

해밀턴 센터가 주최한 세 번째 강연회에선 스리랑카인 부부 한 쌍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참석해 조용히 앉아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 열중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연락인은 그들이 집에서 매일 명상을 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의 강연회와 세미나에도 여러 번 참석한 바 있지만 아직 특정한 스승을 따르고 있진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가족은 이번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고선 무척 기뻐했으며 부부가 방편법을 신청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오클랜드와 해밀턴에서 열린 세



차례의 비디오 강연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흥법 강연회를 통해 주민들은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수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채식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 참여한 동수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알고자 갈망하면서도 강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클랜드와 해밀턴 동수들은 신실한 구도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 태국 소식

### 북부 지방에 신의 복음이 전해지다

[페르] 태국 북부의 페르(Phere) 지방은 고대 토산품과 불탑 같은 종교 건축물로 유명한데, 많은 동수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이곳 동수들의 열망에 따라 방콕 동수들은 2003년 10월 19일 기쁜 마음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강연장으로는 시내에 위치한 피리야라이(Piriyalai) 학교가 선정되었다. 행사에 앞서 동수들은 학교 입구에 스승님의 대형 포스터를 붙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전단지들을 나눠 주었다.

행사 당일 강연장엔 수많은 손님들과 동수들의 친지들로 줄을 이



은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모두들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함께 즐겼으며, 행사장은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했

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고 멋진 체험을 함께 나눴는데, 이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스승님의 사랑으로 축복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한민국 소식

### 풍성한 성과를 낳은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강연회

[서울] 청하이 데이 다음날인 2003년 10월 26일 서울 센터 동수들은 서울 지역 3개 구청 주민들을 위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디오 강연회이기도 했다. 강연회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수들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사랑의 마음' 귀마개 모자를 쓰고 매일 12시간 이상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고 포스터를 붙이는 모습은 다른 동수들의 가슴에 감동을 자아냈다.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화려한 단풍, 눈부신 햇살이 축복하는 가운데 강연회 당일이 되었다. 강연장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은 서울에 소재한 유명하고도 고급스런 문화센터이다. 회관이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서인지 우리 행사는 일요일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은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약 300명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고자 강연회에 참석했다.



정식으로 강연회를 시작하기 전 동수들은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비디오를 상영했다. 먼저 도착해서 이 비디오를 시청한 참석자들은 칭하이 스승님의 전세계적인 사랑과 자비의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비디오 강연 후 동수들은 한국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대구 지하철 사고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대한 구호금 지원 등의 자비로운 행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스승님을 소개하는 ‘사랑의 길을 걷다’ 비디오에 이어 2000년 아시아 순회강연 중에서 포모사 강연이 상영되었다. 청중들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비디오를 시청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스승님과 명상법, 채식에 대해 신실한 질문을 던지는 등 깨달음의 길을 찾고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참석자 중 1/4가량이 방편법을 배웠다.

2003년 올해 서울 센터 동수들이 개최한 세 차례의 비디오 강연



회에 약 1천 명이 참석, 그 중 수백 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다른 센터의 비디오 강연회를 지원하기도 하는 서울 동수들의 성실한 노력은 내적·외적으로 진보를 가져왔다. 이에 서울 사형사저들은 앞으로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할 큰 힘을 얻게 되었다.

## 진선미의 비디오 강연회

[안산] 2003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동수들은 안산시 향토예비군 교육장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 센터 동수들과 흥법 팀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많은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강연회 소식을 열심히 알렸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육장은 시설이 훌륭했다. 동수들은 손님들을 환영하고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건물 바깥에 형형색색의 풍선을 달아 장식했다. 강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저가 이끄는 전문 무용단의 한국 전통 춤으로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강연회의 서막을 열었다.



스승님의 비디오를 다 시청한 후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많은 청중들은 동수들이 특별히 마련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즐겼다. 행사에 참석한 정오화 씨는 “칭하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잘 봤습니다. 위 지역에서 이런 세미나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전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여기서 채식 고기를 맛볼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기뻐합니다. 요리도 잘되었고 맛도 좋더군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깨닫게 해주신 스승

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얘기했다.

## 일본 소식

### 우정을 나눈 채식 뷔페

[도쿄] 2003년 9월 21일 도쿄 센터는 단체명상 후 채식 뷔페를 열어 방편법 수행자와 채식과 관음법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풍성한 채식 요리를 선보였다.

이날 억수같이 퍼부었던 비도 신실한 손님들의 관심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두 개의 대형 테이블에 선보인 이국적이고 다양한 채식 요리는 일식, 중식, 어울락 요리를 골고루 갖춘, 말그대로 국제적인 채식 잔치였다.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수행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수행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채식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멀리서 참석한 방편법 수행자인 한 스님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고 난 후 입문을 열망했으며 홍법 활동도 돕고 싶어했다. 동수들은 또 손님들과 함께 종교와 건강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한의사인 한 동수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멋진 얘기를 하기도 했다.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이 멋지고도 알찬 만남을 한껏 누렸다.

###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공부와 성장

[도쿄] 2003년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도쿄 센터 동수들은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칭하이 무상사 그림 전시회를 갖고 10월 11일에는 카페에 달린 회의실에서 비디오 강연회도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손님들이 찾아와 금세 만석을 이루었다. 먼저 스승님의 생애에 대한 짙막한 비디오와 스승님의 UN

강연이 상영되었으며, 이어서 화가인 동수가 예술과 수행에 대한 견해와 소감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대략 알게 된 손님들 가운데 명



상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이번 강연회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동수들이 강한 협동정신으로 제반 사항들을 맡아 완수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안배와 축복에 깊이 감사드렸으며, 이번 경험에서 배운 유익한 공부를 앞으로 생활과 일에 운용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영혼을 고양시킨 토론토 비디오 강연회

[토론토] 2003년 9월 28일 토론토 센터는 노스욕 중앙도서관에서 공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동수들의 열렬한 지원 속에서 행사장에는 평온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흘렀다.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한 한 방문객은 그림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했으며, 한 여류 화가는 스승님의 그림 '바다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임박한 태풍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급작스런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낸 이 그림에서 바다는 거대하게 소용돌이치고 하늘엔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갈매기는 바람을 가르며 날고 있다. 고향인 바베이도스에서 토네이도 폭풍의 엄청난 파괴력을 본 적이 있는 그녀는 그 누구도 스승님보다 그 광경을 실감나게 포착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수들은 강연회 내내 스승님의 강렬한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사저는 스승님의 강연이 상영되는 동안 그윽한 향기를 맡기도 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한 여성 방문객은 스승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십 명의 신실한 구도자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우고 이후에도 많은 질문을 했다. 이번 흥법 활동을 통해 토론토 동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인류들과 진리의 희소식을 나누어야 한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보다 깊은 깨달음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 캐나다 퀘벡 소식

### 몬트리올 최대의 수확을 거둔 비디오 강연회

[몬트리올] 2003년 11월 2일 일요일 몬트리올 동수들은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행사 전 동수들은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친구들을 초대했으며 불어, 중국어, 어울락어판 신문과 인터넷에 강연회 소식을 올리는 등 사랑의 마음과 성심성의를 다해 이 모든 제반 작업들을 치러 냈다.

강연회장을 가득 채운 이번 강연회의 참석자 수가 몬트리올 센터에서 개최한 역대 강연회 중 최고를 기록해 동수들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 스승님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 강연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참가자들 또한 스승님의 강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디오 상영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강연회가 끝난 한 주 내내 센터에는 방편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소원은 그 다음주 일요일에 이뤄지게 되었고,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정기적인 방편법 단체 명상 시간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로 관음 가족의 새 식구들이 고향으로 가는 영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해 동수들은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손님들은 동수들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안내 데스크를 통해 각자의 의문점을 풀었다.



법회가 총만한 가운데 신실한 구도자들이 스승님의 강연을 시청하고 있다.



손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채식 뷔페.





## 미국 미주리 소식

### 스승님의 힘으로 세인트루이스 주민의 영성 의식이 고양되다

[미주리] 2003년 10월 5일 미주리 센터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전방위 생활 엑스포'에 참가해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들을 통해 숫자는 적지만 신심이 대단한 미주리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큰 고양감을 경험했다.

엑스포에서 우리는 부스를 설치해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했다. 영성 지식을 갈망해 우리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메시지를 상당히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곳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또한 비디오 강연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강연회가 끝난 후 절반가량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대중들의 이러한 열렬한 호응을 통해서 동수들은 지구 전체의 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방위 생활 엑스포' 참가와 비디오 강연회 개최는 미주리 동수들에게 함께 일하고 성장하며 또한 매 순간마다 스승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행사를 마친 후 이번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소 피곤했지만 얼굴은 깊은 만족감으



로 환히 빛났다.

## 미국 미시간 소식

### 평화를 위한 손에 손잡기

[앤아버] 미시간 센터 동수들은 2003년 10월 19일 일요일 앤아버 시에서 주최한 '평화를 위한 인간 사슬 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주민들에게 유대, 이슬람, 아랍, 팔레스타인 공동체, 그리고 여타 종교 및 문화 단체들 간의 평화와 화합을 촉구하고자 이루어졌다. 이 행사는 세계의 화합을 증진하고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세대'를 표방하는 '메기도 평화 사업단'(\*)에 의해 개최되었다. 이 단체는 앤아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앤아버 이슬람 센터에서 유대인

공동체 센터, 유대인 집회장 두 곳을 잇는 7.5마일에 걸친 인간 사슬이 만들어졌다. 이 인간 사슬은 여러 교회와 미시간 대학의 캠퍼스 중심부를 통과해 이뤄졌다.

미시간 센터 동수들도 다른 참가자들과 손을 잡고 앤아버 시내 중심가의 대열을 이루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평화를 위한 인간 사슬에 동참해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발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동수들은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들을 나눠 주면서 이날 오후 퍼져 나온 사랑의 기운이 바로 스승님의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길 희망했다.



\* 메기도 평화 사업단 관련 웹사이트  
<http://www-personal.umich.edu/~megiddo>

## 미국 뉴저지 소식

### ‘심신과 영혼의 가을 축제’에서 무상의 메시지를 나누다

[뉴저지] 뉴저지 센터는 2003년 10월 19일 인근 홀리데이 인에서 열린 ‘심신과 영혼의 가을 축제’에 다시 한 번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신의 안배 덕분에 행사장 중앙에 자리잡은 우리 부스는 한 면에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걸어 행사장 전체를 축복했다.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행사가 성공을 거두길 희망했다. 부스를 찾은 한 여성은 이번 행사가 최근에 참가했던 유사한 전시회와는 확연히 다르게 평화롭고 상서롭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부스가 이 고양된 분위기의 원천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동수들은 “그건 전적으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덕분이에요!”라고 알려주었다. 다른 부스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스승님의 법상을 가리키며 “이 동양 여성은 내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영성 수행이 주제가기 때문에 방문객들 대부분이 명상이나 다른 법문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음법문을 소개하자 금방 받아들였다. 많은 방문객들이 『무상주방』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훑어보면서 간단한 재료로 맛있고 멋진 요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또한 뉴저지 센터의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해 문의하고 관음법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



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이번 ‘심신과 영혼의 가을 축제’ 참가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지고한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수준 높은 물질 세계를 영위하면서 영성의 고양에도 관심을 기울여 심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를 바랐다.



## 스승님의 빛이 비디오 강연회를 빛낸다

[뉴저지] 지난 수년 동안 뉴저지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매주 케이블 TV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테이프를 방송해 왔다. 프로그램이 개편될 때마다 동수들은 더 많은 시청자들이 관음 법문을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대를 선정받기 위해 일찌감치 방송국에 도착해 줄을 서곤 한다.

이 밖에 뉴저지 센터는 2003년 9월 27일과 10월 4일 몬머스 도서관과 모리스 도서관에서 각각 한 차례씩 비디오 강연회를 열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도 했다. 많은 사형사자들이 사전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병에서 막 회복된 칠순의 동수는 전단지를 나눠 주고 포스터를 붙이는 일에 열심히 동참해 많은 감동을 주었다. 동수들은 지역 신문 첫 면에 강연회 광고를 넣고 싶었지만 이 지면은 보통 장기 고객을 위한 공간이어서 우리 광고물을 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의 절묘한 안배로 한 회사에서 막판에 갑작스레 광고 게재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번 행사 소식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컬러 페이지에 실릴 수 있었다.

강연회 당일 우리는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과 출판물을 전시했다. 내빈들은 아름다운 그림과 만세등이 모두 칭하이 스승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는 경탄을 연발했다.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의자



도 계속 늘려야 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엔 방편법을 전수했다. 일부 사람들은 명상하는 동안 천상의 음악을 듣고는 지체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험을 나누었으며, 화신 스승님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뉴저지 동수들은 이번 행사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스승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 배심원의 비밀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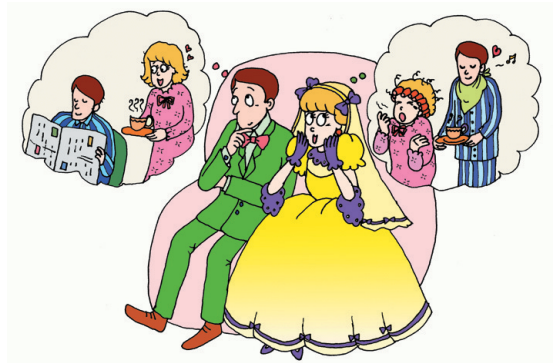
배심원을 맡게 된 사람이 재판관에게 배심원 일로 직장을 너무 오래 비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물었지요, “당신이 없으면 회사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자 배심원이 말했습니다, “할 수야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곤란하지요!”

## 신랑의 뜻밖의 대답

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4

한창 교제 중인 연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남자 친구의 부모님이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는 남자 친구에게 계속해서 말했죠, “정말 자상하신 분들이예요! 당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침대로 커피를 대령하시더군요!” 그녀는 그것을 아주 맘에 들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던 중 여자는 남자의 부모님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갖다 준 일에 대해 그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실재없이 말을 하던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런 좋은 자질은 집안 내력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죠, “그렇고말고! 우리 집은 다 그래. 난 어머니 쪽을 닮았지!”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47/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47/jk1.htm> (미국)



칭하이 무상사의 천상의 영감으로 태어난

천상의 보석이 지상에 내려와

노련한 장인의 손길을 통해

세인들을 놀래다.

흙 잡을 데 없는 진주와 옥은 영광스레 빛나고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세공된 금은

보는 이의 눈을 황홀케 한다.

작품마다 담긴 그 특별한 의미가 가슴에 새겨진다.

우주의 오묘한 지혜를 전하는

칭하이 무상사의 디자인은

모든 인류의 영혼과 생명력을 일깨운다.

## 천상의 영감

천상의 보석에 담긴 오묘한 의미



## 칭하이 무상사와 Bijorcha TV 기자의 인터뷰

1997. 1. 24. 파리 국제 보석전 (원문 불어 및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9

기자(이하 J): 먼저 오늘 우리 Bijorcha TV는 아주 의미 깊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와의 인터뷰지요. 무상사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J: 먼저 당신의 보석 작품과 영성 수행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그러지요! 진선미는 모든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낸다면 이는 곧 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수행을 일깨워 주기



도 합니다.

**J:** 당신의 보석 디자인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스승님:** 그렇습니다.



**J:**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예. 예를 들어 이 보석은 ‘SM’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건 우리 로고입니다.

**J:** 왜 이런 로고를 선택하셨나요?

**스승님:** ‘SM’ 은 ‘무상사(Supreme Master)’ 를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상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성경에서 “하느님,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그 사원이다.”라고 했듯이요.

(기자가 들어 보인 다른 보석 작품에 대해) 그건 새로 디자인한 거예요. ‘두 마음’ 이죠. 심신과 영혼, 모든 방면에서 서로를 잘 이해할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됩니다.

**J:** 그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작품은 “사랑한다.”고 전할 때 쓸 선물인 거군요?

**스승님:** 맞아요. 결혼 패물로도 쓸 수 있습니다.

**J:**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정말 멋지군요. 재료는 뭔가요? 금인가요?

**스승님:** 순금과 다이아몬드예요. 우리는 정말 진귀한 보석과 진짜 금으로만 작품을 만듭니다. 대개 22K에서 24K지요. 진짜가 아니면 쓰지 않아요. 도금한 게 아니라 순금입니다.

**J:** 불어로는 “그건 진짜야.”라고 하지요.

**스승님:** 맞습니다.



**J:** (팔찌를 가리키며) 저 팔찌는 정말 아름답군요! 아주 우아합니다!

**스승님:** 그건 여성용이에요.

**J:** 보석을 디자인하실 때, 어떤 특정한 경지에 드시나요? 아니면 특정한 사물에 의해 영감을 얻습니까?

**스승님:** 신에게서 영감을 얻죠.

**J:**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습니까?

**스승님:** 예. 난 전에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지만 명상을 몇 년 한 뒤에 영감



이 풍부해졌습니다. 이제는 의상 디자인이나 보석 디자인, 그림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J: 저쪽의 칼라형 목걸이도 아주 아름답군요. 저것도 금으로 만든 겁니까? 이름이 뭐가요?

스승님: 이걸 ‘내면의 보이지 않는 연결’이라는 겁니다. 목걸이에 박힌 보석들은 호주산 오팔이고 목걸이 본체는 순금으로 세팅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목걸이의 다른 부분을 가리키시며) 이를테면 이 금은 좀 둔탁한 것이 실제 금과 같은 느낌이지만 이쪽 금은 좀더 반짝거립니다. 이것은 시선을 끄는 예술적 효과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 즉 음과 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보이지 않는 연결

J: 사람들에게 영성을 재발견하도록 일깨워 주는 거군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우리의 진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른 오팔은 보다시피 최상품으로서의 품질과 색상을 갖춘 것인데, 이처럼 크고 색깔이 아름다운 오팔은 아주 희귀하지요.

J: 디자인에 대해 더 얘기해 보기로 하지요. 색상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스승님: 그럼요. 색상이 좋지 않으면 별다른 매력이 없지요.

J: 아, 물론입니다. 바꿔 질문하자면, 색상의 선택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순수한 백다이아몬드와 흑옥인데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피안으로’라는 작품인데 배가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실어 나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J: (‘피안으로’를 카메라에 잡으며) 이걸 좀 보여 드려야겠군요.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스승님: 예. 그 ‘피안으로’는 완벽한 해탈 법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생에서 평온과 해탈을 얻도록 하듯이 사람들을 태풍과 풍랑을 통과해 안전하게 피안으로 인도하는 배를 상징한 거지요.

J: 이런 보석을 착용하면 기분이 나아질까요?

스승님: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상기하고 천상의 자유를 기억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수행하고 종국엔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번뇌를 잊게 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듯이 이 모든 번뇌를 초월하게 되지요.



피안으로

# 『르 피가로』 지(誌)와 RFI 라디오 방송국, Enghien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

1997. 1. 24. (원문 불어 및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9



**기자 1(이하 J1):** 당신의 보석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듯합니다. 그 세계는 진짜인가요?

**스승님:** 그것이 진짜 세계지요. 사실 모든 스승과 모든 종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예수, 모하메드, 석가모니 부처가 추구한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것이 진짜 세계지요. 고요한 가운데 이 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보석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J1:** 왜 각 작품마다 고심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스승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최대의 목적이 우리 내면의 지혜와 신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완전한 방법인 거지요. 보석이라든가 옷, 혹은 생활 방식 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의 왕국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의 왕국이야말로 우리 생의 목표입니다.

**J1:** 그렇다면 당신이 디자인하신 보석들이 착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스승님:** 사람들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석을 골랐다면 그 에겐 이미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신의 왕국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싶어하며 천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J1:** 종교와 부처는 당신의 창작에 얼마나 큰 영감을 주나요?

**스승님:** 부처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모하메드, 부처 등 당신이 거명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성인들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천상의 존재들, 예수나 부처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가르치





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훌륭한 손님 노릇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우리의 근원이 천국, 서방정토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나에겐 똑같습니다.

**JI:** 이 작품들을 하나의 말로 통칭하자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신’, ‘지혜’, ‘천국’... 무엇입니까?

**스승님:** 우리는 이들을 ‘천상의 보석’, ‘천상의 아름다움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옷, 램프, 그림과 같은 실내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깐요. 나의 작품은 모두 천상의 영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천상의 영감에서 온 것이므로 ‘천상의 아름다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지요.

**JI:** 의상, 보석, 시 등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좋아하시나요?

**스승님:** 사실 난 내가 만든 것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에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림이나 보석 디자인, 의상 디자인 같은 것을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수년간 명상을 수행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 지혜를 찾고 난 후 자연스레 생겨난 거지요.

**JI:** 보석 디자인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에게 천상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품에 이름이 붙은 거지요. 통칭으로는 ‘천상의 보석’이라고 하고 각 디자인마다 ‘피안으로’ 나 ‘해탈’, ‘지혜안’, ‘미래불’, ‘명상하는 관음보살’, ‘보리달마’, ‘신의 어린아이’, ‘작은 천사’ 등 각각에 어울리는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고귀한 이름들은 모두 천국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에게 내면의 본성을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목적은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는 공양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보석과 의상, 그림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나는 이 돈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JI:** 이런 작품들은 보통 창작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스승님:** 작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좀더 오래 걸리고 어떤 것은 비교적 빨리 나오지요. 가장 오래 걸린 건 약 일주일 정도이며 가장 빠른 건 하루나 반나절이면 완성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영감이 넘칠 때는



하루에 10에서 20여 개의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룻밤에 의상 30여 벌을 디자인할 때도 있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지요.

**J1:** 아주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시간이 나십니까?

**스승님:** 앞서 말한 대로 영감이 솟아오르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서 아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하지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연스레 시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J1:** 예술적인 영감은 제자들에게도 ‘전염’이 됩니까? 다시 말해 그들도 예술가가 되나요?

**스승님:** 예! 어떤 제자들은 하룻밤 새 예술가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시를 쓴다든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는 법이나 옷을 디자인하는 법을 알게 되지요. 아주 멋진 일입니다. 사실 이진 ‘전염’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명상으로 각자의 안에 있는 최상의 재능이 나오는 겁니다.

**J1:**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참고하거나 배우기도 하십니까?

**스승님:**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나 자신의 창의적인 영감으로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창작 활동을 하면서 우연찮게 많은 예술가들과 알게 되고 서로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지요. 내가 많은 전시회를 갖고 많은 작품들을 창작한 다음 일입니다.

**J1:** 영감의 근원에 관련해선데, 스승님의 비전이나 색상은 어디서 나오니까?

**스승님:** 내면에서요. 내 머리 안에서 나오지요! 때로는 색상이나 도안이 그리기도 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해야 합니다.

**J1:** 보석 작품에 관해 기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스승님에게 영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다이아몬드 등 사용되는 재료에도 신경을 쓰시나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재료 같은 세심한 부분들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최상품으로 평판이 좋은 금과 보석을 사용하며 색상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내면의 보이지 않는 연결’ 목걸이의 오팔 하나를 가리키시며) 예를 들어 이런 색상은 아주 드문 데다 이만한 크기를 찾기로 아주 힘듭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오팔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지요. 금과 보석, 준(準)보석까지 우리는 완벽한 천상의 품격을 대표하기 위해 최상품만을 고릅니다.

**기자 2(이하 J2):** 자신의 보석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보석 작품을 볼 때도





의미를 붙이십니까?

**스승님:** 보석 작품은 오직 만든 예술가에게만 의미를 붙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영감, 생각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술 작품으로 감상할 뿐이지요. 보석 제작자가 자기 작품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보석이나 예술 작품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J2:** 감사합니다.

**스승님:** 천만요. 만족하십니까?

**J2:** 예,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반지를 좀 보시고 의미를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당신이 만든 건가요?

**J2:** 아,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스승님:** 그럼 나에겐 다른 사람의 창작 영감에 의미를 붙일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반지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알겠죠?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영감과 예술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가 디자인한 보석만 착용하진 않아요. 누구 작품이든 착용합니다. 장소에 맞고 괜찮은 것을 발견하면 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보석에 의미를 따로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냥 살 뿐이지요.

**J2:** 오늘 왜 그 보석을 착용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승님:** (착용하신 '내면의 보이지 않는 연결'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리키시며) 오늘은 녹색 옷을 입으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오팔 색이 거의 같은 색이라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보통 서로 잘 맞춰 입어서 보기에 조화로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강렬하고 상호 충돌적인 에너지 대신 하나로 융합된 통일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걸치는 모든 것은 내면과 외면의 평화와 조화를 나타냅니다.

**J2:** 어떤 재질이 완전함을 대표합니까? 아니면 선호하시는 재질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나 금을 더 좋아하시나요?

**스승님:** 신이 창조한 것이라면 작은 조약돌이라도 나름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세계에서 좀더 귀하고 빛나는 돌을 고르는 것은 내면의 빛나는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오팔, 루비 등과 같은 것을 골라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창작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빛나는 물체를 좋아하는 까닭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빛나는 본질, 내면의 빛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루비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거지요. 물질적인 소유욕 때문이 아니라 빛으로, 찬란한 우리 내면의 왕국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영혼의 갈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오래가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미래불

**J2:** 말씀하신 ‘빛’은 아까 언급했던 당신을 감동시켰던 그 빛을 의미합니까? 부처의 빛 말입니다.

**스승님:** 이것은 내면의 빛입니다. 부처에겐 그

림에서 보이듯이 머리 주변에 빛무리가 있었고 예수 주변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그림이나 조각상에는 주변에 광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빛무리가 있어요. 때로는 지혜안으로 성인이 발산하는 빛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빛이 있습니다. 보라색 빛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검정색 같은 빛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인 스승은 아주 밝은 빛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석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발견할 때 내면에서 빛나는 빛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음(Enlightenment)’인 것입니다. 즉 빛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좋아하는 것인데, 보다 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빛을 좋아하고 그것을 다시 알고자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기억하고 싶어하기에 다이아몬드나 금, 은, 사파이어 등 빛나는 물체를 좋아합니다.

**J2:** 이 보석들이 오래 지속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보석을 착용함으로써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승님:** 맞아요! 그런 보석은 영원하고 우리 진아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보석을 좋아하는 건 그들 자신의 영원한 자아, 그들 내면의 영혼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기억인 것이지요. 이런 빛나는 물체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보석 뿐 아니라 어떤 보석이든 그래요. 빛나는 보석이 내면의 빛나는 자질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나는 보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빈 이야기: 한 영혼의 갈망

레이, 줄리 덕슨/ 호주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원문 영어)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는 로빈 예트먼은 호주 오지에 살고 있다. 어느 센터하고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는 이메일을 통해 시드니, 캔버라,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센터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승님의 출판물을 빌리거나 수행의 조언을 구하곤 한다.

로빈에게 수행에 대해 좀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자 동수들은 입문을 준비하라고 권했다. 최근 그는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센터를 방문해도 될지 물었다. 13시간을 운전해 금요일에 센터에 도착한 로빈은 주말 내내 센터에 머물며 단체명상의 이로움을 한껏 누리고 동수들과 만나 보았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날 로빈은 센터의 자동응답기에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느꼈던 흥분과 놀라움에 대해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으며 신비하고 좋은 체험을 해서 하루바삐 입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센터에 보내 온 로빈의 이메일 내용이다.

### 센터 방문을 요청하는 로빈의 글

저는 육식, 술, 담배를 금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문으로 얻어질 평화로움을 갈망하고 있지요. 과거의 생활에 대해 실망과 슬픔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사랑하는 스승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께 인도하는 스승님의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타다 남은 불씨는 다른 불씨들과 함께 큰불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어 버릴 테니까요.

청하건대, 센터를 방문해 이틀 정도 머물면서 동수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에는 참석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센터를 방문한 후 로빈의 소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센터로 향합니다. 센터 계곡의 장대한 경치가 눈에 선합니다. 저의 갈망이 극도로 달했을 때 제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친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모두를 잇는 하나의 고리와 같은 것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스승님이 제게 가져다주신 평온 덕분에 저는 항상 냉정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입문의 경이로움도 더욱 잘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모든 이로움과 책임감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결점투성이인 사람이 스승님처럼 높은 분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인생에서 성인의 대열에 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생애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 모든 환상에 빠져들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모든 은혜가 깊고도 깊을 뿐입니다.

이제는 30분의 명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겐 그 이상이 필요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로움 또한 점점 더 불어나는 듯합니다. 하루 2시간 반 명상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드니, 캔버라,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의 동수들은 로빈의 체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칭하이 스승님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다. 관음 가족에 들어오는 새로운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극한 갈망과 헌신의 마음 때문에 스승님께서 ‘신과 하나 되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 별들에게 귀기울여 봐

누군가 스승님께 별들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묻자 스승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럼요! 그게 바로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에바 사저/ 불가리아 소피아 (원문 영어)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 1900~1944)는 비행기 조종사이자 유명한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시적·음악적 특성을 담고 있으며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인간적인 면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한 작품에서 “무엇이든 잘 보기 위해선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이라고 했다.

우편 수송기를 조종했던 시절, 생텍쥐페리는 별들에게 매혹되었으며 밤이면 지상에서 반짝이는 작은 창문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깨어 있는 영혼’으로 묘사한 별은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어하고 인류에게 그 정보를 알려 주고자 한다. 생텍쥐페리는 또 사막의 특성을 잘 이해했으며 아무것도 살지 않는 황량한 북아프리카 불모지 위로 비행하는 동안 깊고 평온한 상태에 들기도 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들어가 삶의 본질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내면 지향성 때문에 그의 소설엔 철학적 어조가 깊이 깔려 있지만 문체는 매우 부드럽고도 평이하기만 하다.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작가와 함께 지구의 가장 끝에 있는 곳으로 유람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생텍쥐페리의 죽음은 아직까지 미스터리에 싸여 있다. 1944년 어느 날 그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일년 전에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예언적이고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은 『어린 왕자』를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조종사는 먹을 것과 물도 별로 없는 상태로 사막에 불시착한다.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소혹성에서 온 어린 왕자가 그 앞에 나타나자 조종사는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린다. 두 사람은 은유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접근한다.

소설의 끝 부분에서 미지의 소년은 떠나고 조종사는 비행기를 수리하는 데 성공해 모든 것이 잘 풀린 듯 보인다. 하지만 내면의 크나큰 상실을 경험한 듯 울고만 싶어지는 것은 조종사가 어린 왕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하잘것없는 세속적인 삶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생존에 급급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종사는 ‘안전 무사하게’ 일상으로 되돌아오지만 그의 영혼은 사막에서 발견했던 이런 다른 차원과 계속 접촉하길 간절히 바란다. 어린 왕자는 이별할 때 별들의 소리를 통해 항상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는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이 틀 무렵에 보니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 무거운 몸도 아니었는데… 그래



서 나는 밤에 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오억 개의 방울들과 같다.”

같은 맥락으로 누군가 스승님께 별들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묻자 스승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럼요! 그게 바로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스승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 바로 생텍쥐페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사막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실 우리가 하는 ‘관음(觀音)’은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정도라 할 수 있다.

소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 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될 날이 있다면 이곳을 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만일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제발 서두르지 말고 그 별 아래서 잠시 기다려 보라! 만일 그때 조그만 남자 아이가 웃으면서 당신에게 다가오면, 그리고 그 애의 머리칼이 금발이고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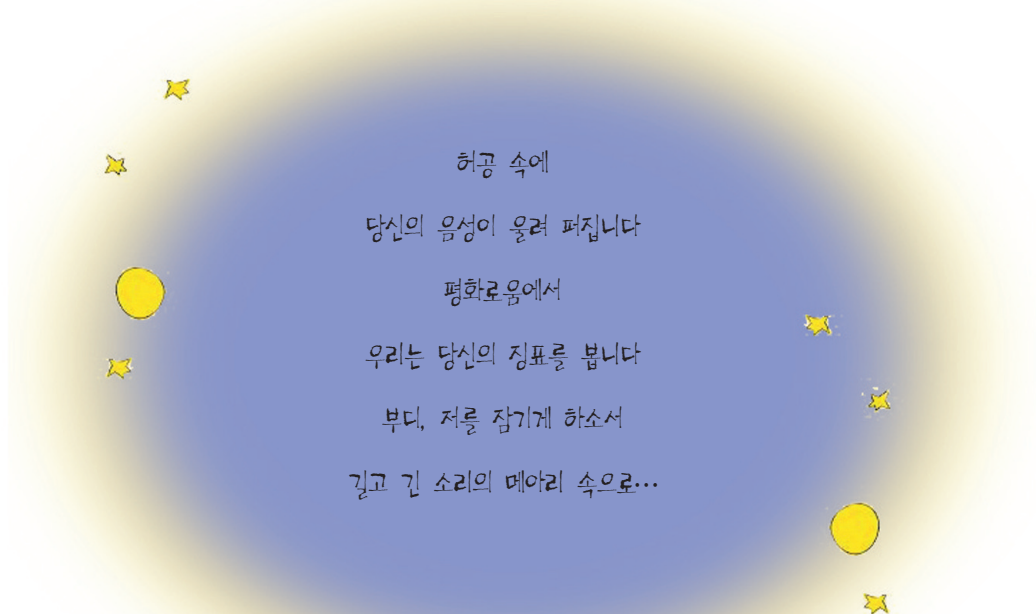
면 여러분은 그 애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위안이 되게끔 그 애가 돌아왔다고 내게 곧 편지를 띄워 주기 바란다.”

그래서 오늘 나는 흥분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바친다.

#### 존경하는 생텍쥐페리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안의 소식이 당신에게 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린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별들은 다양한 선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어린 왕자’는 당신의 소망 그대로 아주 매력적이고 쾌활하며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 칭하이 무상사님께: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삶의 여정을 쉼새없이 가면서도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 '집으로 돌아간다'고들 하지만, 대체 어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 무덤은 죽은 자의 집이 아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5. 9. 1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500

사람은 죽고 나면, 설령 국왕이나 그 어느 누구라 해도 물질적인 육신은 모두 동물의 먹이가 되고 벌레에게 파먹히며 시간이 흐르면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육신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자기 사체를 약물로 미라를 만들어 보존해 보려고도 했지만 이 미라는 죽기 전의 육신과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 가치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요.

겨우 2천 년 전에 죽은 시신 하나를 발굴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과 인력,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시해 놓지요. 가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상한 것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늘 기아 문제를 논하면서 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저기에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을 늘어놓지만 각지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선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시체나 선사 시대의 동물에 관심을 갖지요. 공룡의 화석을 발굴하고 죽은 사람의 뼈를 찾느라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무서운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합니다.

유물을 발굴하는 도중 때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땅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돌발적인 상황이지요. 때로 나무를 베려 원시림 속에 들어갈 때도 이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숲에서 수백만 년 동안이나 숨어 있으면서 한번도 인간에게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감염이라도 되면 거의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함부로 발굴하고 나



무를 베어내면서 이런 세균들이 퍼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불치병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어떤 무덤에는 무덤 안의 보물이나 부장품을 노리는 도굴꾼을 막기 위해 많은 세균과 독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보물도 결국 도둑맞기는 합니다. 세균은 제일 처음 무덤에 들어온 몇몇 도굴꾼을 감염시키겠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살아서 보물을 들고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아주 많은 해로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행성 사람들의 일은 엉망진창입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살아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몸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한 다음 자신과 사회에 이로운 일들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해야 합니다. 죽을 때 소란 피우지 말고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온 거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무수한 소, 돼지를 잡아서 엄청난 업장을 짓습니다.

『지장왕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亡者)를 위해 살생을 하면 죽은 이도 그 과보를 받는다. 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생으로 귀신에게 공양하면 산모와 아이도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은 살생의 업장이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동물을 죽여서 죽은 이에게 제사를 지내면 망자의 자유를 방해하게 되고 그들의 복을 감소시켜 결국 죽은 이는 빨리 해탈하거나 높은 경지에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 좋은 의도로 행한 것이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옛날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성현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칭하면서도 『지장왕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해했다면 감히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이지 못했을 테니, 남을 위해 살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심한 짓을 합니다. 친척이 죽으면 소위 ‘명당’을 사기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고 어떤 땅이든 삽니다. 비쌀수록 좋은 땅이지요. 사실상 자신들을 위해 죽은 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부모는 죽어도 후손을 보호하는 데 이용됩니다. 비싼 땅을 사는 건 그들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인 자신들을 잘 돌봐 달라고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주 계산이 분명하지요. 어떤 이들은 땅을 사서 무덤을 짓는 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돈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자손은 집에 돈이 별로 없어도 묘지를 구입하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 덕에 후손들이 번창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돈을 거기다 다 썼으니 당연히 사업에 쓸 돈이 없지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했다면 집안은 당장 부

유해했을 겁니다. 뭐 하러 친지의 시신과 영혼을 무덤 속에 가둬 놓습니까! 죽어서도 계속 후손들을 돌봐야 하다니! 이렇게 해야만 ‘효도’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불효자식이라고 나무랍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 살아 있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라

살아 있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진짜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길을 가면서도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삶의 여정을 실재없이 가면서도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 ‘집으로 돌아간다’고들 하지만, 대체 어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살아 있을 때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 있을 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죽은 뒤에는 무덤에 들러붙어 있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덤이 우리의 진짜 집인 건 아니지요! 무덤은 또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 명상으로 수행의 길을 밝히자

청하이 무상사/ 1996. 3. 14.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37b

**질문:** 수행자인 우리는 모두 명상을 통해 깨닫고자 노력합니다. 명상으로 우리의 경지를 높이는 것 외에 우리가 이 지구의 거주민으로서 자신을 발전시킬 방법으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승님:** 명상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명상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전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론 일하고 한편으론 명상하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명상하는 동안 모든 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혜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최상입니다. 그러니 먼저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뒤따를 것입니다. 성과가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명상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십시오.

# 스승님의 위대한 힘으로 어머니의 시력이 회복되다

예비 입문자 손/ 중국 본토 (원문 중국어)

나는 채식 식당에서 일할 때 우연히 관음법문을 하는 사형을 통해 이 법문을 알게 되었다. 그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어머니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먹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나는 인생무상을 실감했고 그에 따라 어서 관음법문에 입문하고픈 갈망도 커졌다. 그래서 나중에 몇몇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방편법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8개월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나는 계속 어머니께 채식을 권했다. 사제들도 우리를 매우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그 중 70세의 원 사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 집에 와 어머니에게 스승님의 책과 뉴스잡지를 읽어 주는 한편 명상을 하며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하면서 큰 용기를 주셨다. 나도 어머니께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틀어 드렸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병세가 여러 차례 악화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시력이라도 회복되기를 간절

히 빌었는데, 스승님의 전능하신 힘의 축복을 받아 소원이 이루어졌다! 실명했던 한쪽 눈의 시력이 돌아왔고 심지어 스승님의 사진을 입술에 갖다 대어 키스하시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전지전능하신 신과 스승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사제들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번은 체험 중 큰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맞이하는 광경을 보았다. 내가 아직 방편법만 수행할 뿐 정식으로 입문하지도 않았는데 스승님의 위대한 힘은 벌써 나의 가족을 돌보고 계신다. 또 스승님의 가르침은 나의 인생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쳐 내가 수행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스승님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어서 빨리 입문해 하루라도 빨리 깨달음을 얻고, 또한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행복하고 자비롭고 베풀기 좋아하고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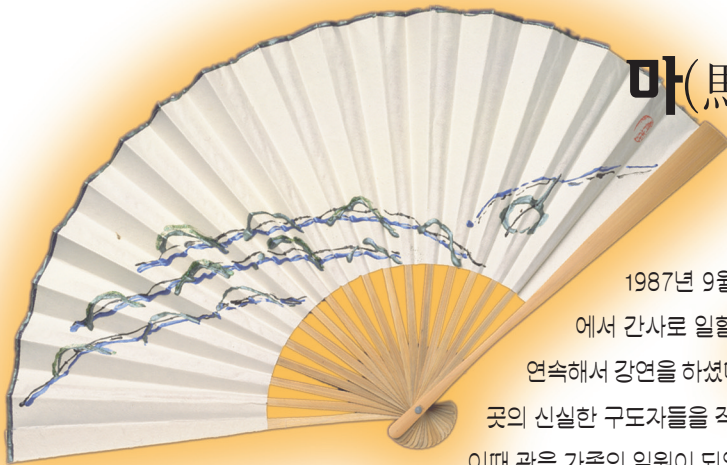


감로법어

다른 사람을 존중할수록 우리의 애고와 아만, 교만심은 줄어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고귀해지고 총명해지며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흔들리기 쉬운 감정에서, 열등감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1989. 9. 24. 홍콩 (원문 중국어)





## 마(馬) 아저씨 이야기

1987년 9월 내가 타이난 마도우의 '푸먼 런아이 양로원'에서 간사로 일할 당시, 스승님께서 이곳의 초청을 받아 6일간 연속해서 강연을 하셨다. 강연이 끝난 다음날인 9월 28일 스승님은 이곳의 신실한 구도자들을 직접 입문시키셨다. 나와 여든 살의 마 아저씨도 이때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포모사 타이중 천수원 사저 (원문 중국어)

**퇴**역 군인인 마 아저씨는 런아이 양로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 예순 살에 중풍이 와서 한쪽 팔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말할 때도 입에서 침이 흘러 내렸다. 아저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승님을 만나 입문을 할 수 있었다. 아저씨는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수행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 아저씨를 통해 관음법문 수행과 더불어 생기는 기적들을 뚜렷이 목격할 수 있었다.

### 전심으로 수행에 정진하다

런아이 양로원의 거주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보통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후 거실에 모여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 아저씨는 혼자 방에 들어가 주무셨다. 그리고 자정쯤 폭 쉬고 일어나 아침 6시까지 명상을 하셨다. 명상 후엔 몸을 풀기 위해 체조를 하고 때로는 관리인들이 건물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곤 하셨다. 아침 7시에 식사를 끝내고 나면 다시 방에 들어가 잠깐 잠을 자고 그후

에는 산책을 하거나 상점들을 구경 다니신다.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신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두 시간 동안 명상을 하신다. 그러니 하루에 8시간을 명상하는 셈인데, 마 아저씨는 명상 시간을 꼬박꼬박 기록하시곤 했다.

당시 타이난 치구 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단체명상 시간이 있었다. 동수들이 차로 아저씨를 태우러 오곤 했는데, 아저씨는 한번도 못 간다고 하신 적이 없었다. 게다가 시후 센터 선 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셨다. 원래 운신하기가 힘들었던 아저씨는 관음법문을 수행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다. 침도 멈추고 팔다리에 힘도 생겼으며 흐릿했던 눈빛도 뚜렷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

아저씨는 스승님께 입문을 한 후 늘 명상의 법열에 잠겨 있었고 몸의 불편에 대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의사도 찾지 않으셨다. 딱 한 번 발가락 사이에서 노란 물이 나와서 의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의사는 몸의 독소가 빠져나오는 좋은 징조라고 했다.

2년간 부지런히 수행하던 아저씨는 어느 날 “스승님께서 시후 센터 장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 하고

말씀하셨다. 아저씨는 수속을 마치고 런아이 양로원을 떠날 준비를 하셨다. 마 아저씨는 일부러 우리 집을 방문해 남편과 인사를 나눈 후 내게는 부지런히 수행하라고 당부하셨다. 아저씨가 떠나면서 대나무 모자를 놓고 가셨기에 내가 서둘러 갖고 나가 돌려주자 아저씨는 여유롭게 손을 내저으며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난 이제 됐으니까, 네가 가지렴!”

## 선정 속에 세상을 떠나다

마 아저씨가 시후로 가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아저씨가 명상 중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 장주가 양로원으로 알려 왔다. 나중에 들어 보니, 당시 부검자가 아저

씨의 사망을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대단히 강렬한 빛이 뿜어 나와 필름을 전부 망쳤다고 한다.

나는 런아이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로병사는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과정임을 깊이 체득했다. 우리 양로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늘 침상에 누워 생활하면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이 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은 건강해 보여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인과가 닥치면 제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도울 수 없는 법이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기란 수십억 겁 생애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이다. 스승님이 전해 주신 관음법문은 우리를 생사에서 해탈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 마 아저씨의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이 이에 대한 최고의 증거라 할 수 있다.



감로법어

더 많이 명상하고 노력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면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정말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진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기분도 점점 불편해지며 죄책감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스스로 불행해져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2. 1. 26.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06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가 얼마만큼 컸는지,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런 각도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 알아보십시오.

청하이 무상사/ 1996. 12. 29.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선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71



# 잇을 수 없는 루마니아 순회 흥법

(원문 영어)

루마니아에 스승님의 귀한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유럽 동수들은 열정적으로 일련의 순회 강연회를 계획하고 루마니아 네 지역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순회 흥법 강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를 루마니아어로 번역하는 데 힘썼다. 이 외에 포모



사 작업 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루마니아어 자막이 들어간 여러 비디오테이프를 제때 출판할 수 있었다. 이번 흥법 활동에 참여한 동수들은 서로 언어와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다 이상과 목표 의식이 더해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랑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다.

강연회를 위해 우선 4개국에서 온 10명의 동수들은 스승님의 1999년 유럽 순회강연 구성에 따라 조를 나누고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 중심부의 2개 대도시, 헝가리 국경과 인접한 도시 1곳 등 4개 도시를 선정해 흥법 활동을 시작했다. 1조와 2조가 전단지 배포 및 스승님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붙이고 강연회 돕는 일을 진행하는 동안 나머지 한 팀은 각 도시를 순회하며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후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10명의 동수 중 한 명만이 루마니아어를 하는 현지인이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1주일 새 4차례의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마치 커다란 퍼즐의 작은 조각들이 제 시각에 제자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또 스승님의 축복 속에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도 각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있었고, 일하는 틈틈이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는 강연회 참석자들의 수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은 후 스승님의 부드럽고 명쾌한 강연에 빠져들었다. 부쿠레슈티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스승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처럼 아름다운 스승은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는 정말 유익하고 긍정적인 경험이었어요. 결코 잇을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이런 강연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언제 다시 오나요?”, “다음 강연회는 언제죠?” 하는 것이었다.

강연회마다 열렬한 호응을 얻었는데, 손님들은 강연회 다음날까

지도 계속 찾아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묻고 그 가르침을 더 배우기 위해 동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했다. 이에 일부 적극적인 참석자들은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해 정감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동수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동수들과 손님들은 밤을 새워 언제까지라도 살아 있는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참으로 멋진 경험이었다! 동수들은 시공의 개념을 잊은 채 신과 스승님, 내면의 빛과 소리에 대해 얘기했으며,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손님들이 스승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고양된 이 모임에서 사람들의 흥분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스승님께 입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말씀 한 구절마다 이치에 맞는 스승님

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채식이 매우 뜻 깊고 이롭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즉석에서 앞으로 완전 채식을 하기로 결심하기도 했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난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처럼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결코 잊지 못할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천국의 은총, 인간의 사랑

### -진먼 홍법 활동

(원문 중국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포모사 동수들은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먼 지구에서 ‘천국의 은총, 인간의 사랑’이라는 기치 하에 홍법 및 공익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앞서 동수들은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먼의 진사 센터에서 선이 행사를 개최해 신의 축복 속에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진먼 동수들은 열심히 작업에 임했으며 평동과 타이난 동수들도 바다 건너 도움의 손길을 전해 왔다. 참가자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이웃 섬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재소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영성 세미나

동수들은 먼저 10월 24일 진먼 교도소에서 교도소 측과 재소자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치우시엔 교도소장이 친히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번 강연회에서 한 교도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가져와 강당에 걸자 강연장에는 즉시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넘쳐흘러 모든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진행 되는 동안 모두들 지혜로 가득한 스승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이어서 관음사자가 자신의 수행 경험을 함께 나누고 방편법의 수승한 이로움을 설명했다. 방편법을 배워 신실하게 명상한 60명 재

소자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눈부시게 빛났으며 강연장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한 재소자는 내년 3월에 출감하면 스승님께 입문해 완벽한 해탈 법문을 얻어 소원을 이룰 수 있길 희망했다.

행사가 끝난 후 치우 소장은 동수들을 친절히 대접하며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른 동수들의 선행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 심신과 영혼을 위한 최고의 축제



열렬한 호응을 얻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 이날 진먼의 많은 주민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참석자들이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음식을 즐기고 있다.



10월 28일 진먼 동수들은 진샤 지역 사무실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과 출판물도 전시했다.

황이신 진샤 읍장도 행사에 참석해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승님의 예술적 재능에 크게 감탄했으며, 나중에 환영사를 통해 스승님과 동수들의 헌신적인 공헌과 진먼 지역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명칭 케이블 TV의 PD 예지엔송 씨도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관음사자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는 강연장에 빈 좌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진먼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스승님의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손님 중 3/4 이상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그 중 아이들을 동반한 어머니들이 많아서 방편법을 배우는 동안 한 사저가 아이들을 따로 돌보았다. 몇몇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자마자 울면서 소란을 피우자 책임을 맡은 사저가 스승님의 노래인 'Go! Go! Go!'를 틀어 주며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아이들은 노래를 듣는 즉시 조용해지더니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스승님의 보살핌에 정말 감사드릴 뿐이다.

방편법 전수 후 새로운 수행자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음식을 함께 즐겼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연회는 심신과 영혼 모두를 위한 가장 멋진 축제가 되었다!





## 스승님의 은총이 리에위 섬을 빛낸다

‘작은 진면’이라 불리는 리에위 섬은 진면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우며 소박한 농촌이다. 동수들은 10월 30일 배를 타고 리에위 섬에 도착해 비디오 강연회를 열고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을 전시하는 일 외에도 무료 의료 검진 및 미용·이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단지과 지역 방송을 통해 진작부터 강연회와 작품 전시회 소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관계로 많은 참석자들이 몰렸다.

건강 상담과 이발을 위해 아침

터 도착한 섬 주민들은 모두들 동수 의사들과 미용사 사저들의 전문 기술과 봉사 정신에 깊은 감동을 안고 돌아갔다. 현장을 방문한 리에위 중학교 우치팅 교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활동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지역 사회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행사라고 하면서 특히 스승님의 예술 작품 전시로 그 긍정적인 이로움이 더욱 커졌다고 얘기했다. 우 교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있기를 희망했다.

비디오 상영 후 참석자 대부분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참석자들은 영적인 양식과 동수들이 제공한 채식 요리를 한껏 즐기고 또한 떠날 때도 뉴스잡지와 견본책자를 기념으로 받아 신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갔다.

## 진리의 복음이 두루 퍼진 진면

11월 1일 진청 체육관에서 마지막 흥법 행사가 열렸다. 행사 당일 정오에는 진청의 몇몇 학교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해 체육관 앞 광장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학생들의 능숙한 솜씨와 사랑스런 모습은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끌어냈으며 이번 행사의 맛을 더해 주기도 했다! 명청 케이블 TV의 PD 또한 다시 한 번 방문해 행사를 촬영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상영되는 동안 진리와 지혜를 논하시는 스승님의 흡인력 있는 말씀은 청중을 사로잡았고 아이들조차 조용히 시청하게 만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 대부분이 방편법을 배웠으며 강연장에서 신의 사랑이 역력히 느껴졌다. 방편법을 배운 80세의 할아버지는 화신 스승님이 다가오셔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셨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명상 후 밝고 행복해하는 주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 내면이 고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진면 섬에서 가진 이번 흥법 활동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심어 준 채 끝이 났다. 가까운 미래에 점점 더 많은 진면 주민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진면 섬에서 무료 건강 검진과 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 2003 세계 채식 박람회

## 자비로운 삶의 방식을 알리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좋은 소식을 널리 알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는 곧 채식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계율을 지키고 단순한 삶을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인 식단을 선택하는 등 이전 세대들이 추구해 왔던 자연적인 생활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채식 인구의 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채식 자원 단체(The Vegetarian Resource Group)의 집계에 따르면 2000년 현재 미국에서는 성인 중 600만 명이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하며, 『스탠포드 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생 네 명 중 한 명 꼴로 채식을 하거나 완전 채식주의자라고 한다. 채식주의는 할리우드에서 더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토비 맥과이어, 나탈리 포트만, 더스틴 호프만, 크리스티 터링턴, 조아퀸 피닉스와 같은 스타들이 열렬한 채식 추종자들이다. 게다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칼 루이스, 테니스 스타인 나브라틸로바 등과 같은 유명한 운동 선수와 많은 체육인들도 채식으로 전향했으며 이에 따라 채식이 도덕적·영적·육체적·경제적으로 이롭다는 점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자유를 향하여(Towards Freedom)’

는 1999년 이래 매년 세계 채식 박람회를 개최해 채식 이념을 보급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이 특별한 행사에 수천 명이 참관하는데, 대다수가 채식을 하거나 완전 채식주의자들이다. 배우인 알리시아 실버스톤, 우디 해럴슨, 제임스 크롬웰, 린다 블레어, 그리고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식단』의 저자인 존 로빈슨을 비롯해 유명한 채식주의자들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스승님은 ‘육바라밀’ 강연에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은 비폭력으로서 이는 모든 중생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고 채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9월 28일 일요일 2003 세계 채식 박람회에 참가해 비폭력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LA 센터 주방 팀이 정성스레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함께 즐겼다.

행사 당일 우리 부스에서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담긴 법상이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견본책자도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 시작부터 인파가 물밀듯이 닥쳐 우리 부스 주변은 흥분의 도가니를 이루





었다. 일부 동수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 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샌디에이고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한 채식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 UN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읽었는데, 전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그분의 활동에도 지지를 보냅니다. 스승님은 저와 제 아내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앞으로 더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 샌디에이고 센터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채식 요리를 통해 채식 요리의 간편함을 알리고자 우리는 ‘맛있고 영양 있는 요리’ 비디오테이프 400여 개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사람들은 고급스런 증정품을 받고는 매우 기뻐했으며 채식을 실제로 알리기에 좋은 방식이라면서 좋아했다.

나이 어린 동수들은 소와 물소, 닭, 물고기, 원숭이 등의 동물 의상을 입고 “나를 사랑해 줘요. 먹지는 마세요.”라는 호소를 담은 팻말을 달았다. 이 귀여운 동물들은 많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린이들은 ‘동물 친구들’에게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자 좋아하는 동물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축제의 주최자인 서릴 페펠 여사는 우리 협회의 참가에 반가워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페펠 여사는 또한 NBA 챔피언을 네 차례 차지하고 현재 폭스 스포츠 쇼의 공동 진행자인 존 셀리 씨를 우리 부스에 초대해 채식 음식을 소개했다. 셀리 씨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좀

가져가기도 했다.

오랫동안 채식을 해 온 페펠 여사는 나중에 동수들이 준비한 요리를 먹어 보고는 우리 부스를 떠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돌아와 동수들에게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천국에 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먹는 요리마다 더 맛있더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해 줘서 굉장히 기쁩니다. 내년에도 계속 참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를 남겨 놓을게요.” 그녀는 또 우리 부스가 줄도 가장 길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았다면서 우리 단체의 성공을 축하했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스승님의 축복 속에 사랑과 헌신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채식을 보급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행사는 저녁 6시에 끝마치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최 측에서 우리에게 저녁 7시 30분까지 남아 달라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 부스를 방문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따뜻했던 날이 저물었다. 우리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 채식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21세기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황금시대의 도래를 명백히 목격할 수 있었으며, 스승님의 사랑에 감싸인 낯모르는 이들 수천 명은 만물에 대한 자비와 박애의 고아한 이상 속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다.







## 맛과 멋이 풍성한 태국 채식 음식전

태국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2003년 9월 27일과 28일 주말 동안 방콕 센터와 기타 지역 동수들은 방콕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반 사왕섬 초청시오 지방에서 태국 채식 음식전을 개최해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녹음이 우거지고 경치가 아름답고 상쾌한 이 지역은 평소 선이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전통 태국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채식으로 된 태국 주요리와 후식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여기에 태국 과일과 채소 조각전까지 합세해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더했다. 각 그릇들은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은 태국 수공예품처럼 모양도 아름답고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바나나 잎으로 감싸기도 했다. 또 참가한 모든 동수들이 전통 태국 의상을 입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

현장에서 제공한 채식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우아함과 예술성이 뛰어나 모든 방문객들의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 밖에도 명상홀에서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해 방문객들은 육신과 영혼 모두를 보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일에 참가함으로써 동수들에게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키울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 모든 행위에는 영적인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하이 무상사/ 2000. 5. 12. 대한민국 영동 선육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01

**질문:** 이 세계의 수많은 업장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채식에 대한 이념을 서서히 퍼뜨려 나간다면 그것들이 근절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죽는 동물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의 업장도 좋아질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주 많은 방면들도 좋아질 것입니다.

**스승님:** 그건 모두 알고 있어요. 현재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채식의 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채식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채식은 영적 갈망과 함께 오는 일종의 요건일 뿐입니다. 신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채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질문:** 만약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지만 채식을 수용한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스승님:** 아뇨. 많은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식의 동기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사랑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채식은 공허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동기로서 우

리 행위를 뒷받침해야지 반대로 외면의 행위가 영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랑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에 있는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자 갈망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질문:** 예, 그 목표가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겠군요.

**스승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삶이 더 건강해진대거나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동기에 실린 힘입니다.

**질문:**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소와 돼지들을 보았는데, 제 느낌엔 채식을 널리 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스승님:**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TV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모두들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돼지와 소도 중생이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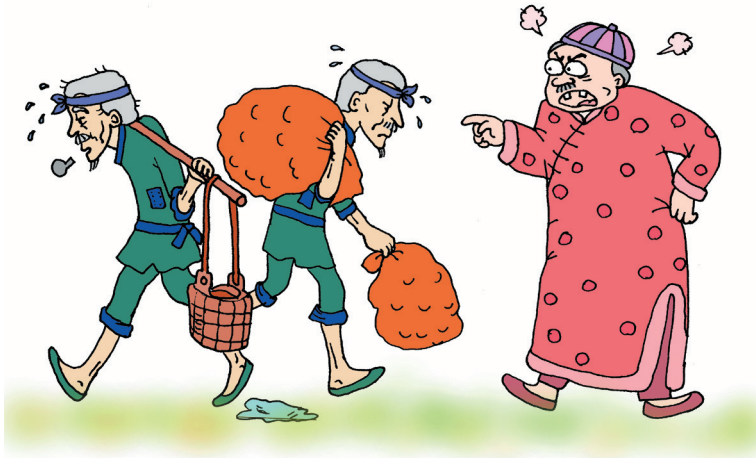
**스승님:** 그렇지요. 아마 그들이 당신과 인연이 있었나 봐요. 당신이 그들의 구원자인지도 모르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세요.

**질문:** 예, 그게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천만에요. 우리는 각자 가는 방향을 달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각자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채식 식품을 만드는 동수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게 TV에 나가 채식 식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채식만 떠올리게 될 거란 점입니다. 그러면 내게 채식에 대한 것만 묻겠지요. 채식은 내 일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주요한 일로 삼는다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일이 너무 더더져서 나는 어느 누구의 영혼도 구하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십시오. ‘금연 운동’에 동참하거나 채식을 권장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 우주 보상(補償)의 법칙

청하이 무상사/ 1989. 2. 13.-1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MP3-4



전에 한번 ‘보상의 법칙’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젠 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도 말한 적이 있지요. 『열자(列子)』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아주 많은 큰부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그는 하인들에게 아주 박정하게 굴어서 지칠 때까지 부려먹으면서도 먹을 것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아파도 약도 안 주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 나이가 아주 많은 한 하인 역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잘 때는 아주 달콤한 꿈을 꾸었죠. 아마 우리 수행자들의 체험과 비슷했을 겁니다. 혹시 관음법문을 수행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늙은 하인은 꿈에서 왕이 되어 많은 부하들의 시중을 받으며 행복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깨고 나면 다시 하인의 처지로 되돌아왔지요. 매일 이런 식이자 그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꿈을 꾸려고 재빨리 자리에

누웠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나 부자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도 매일 꿈을 꾸긴 했지만 그 꿈들은 죄다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자는 노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밭을 받고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하면서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 피로, 병, 힘든 일과 온갖 고달픈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둘 다 매일 밤 꿈을 꾸었지만, 한 사람은 달콤한 꿈을, 다른 한 사람은 악몽을 꾸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어느 날 부자는 피곤을 견디다 못해 해몽가를 찾아가 자





신의 괴로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해몽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낮에 일꾼들을 마구 혹사시켜서 그 업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그렇게 고통스런 세계를 살아야 하는 거죠. 우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나친 고통을 받거나 지나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은 부자는 집으로 돌아온 즉시 하인들에게 잘 대해 주고 좋은 대우도 해주며 사랑으로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도 차츰차츰 좋아져서 악몽도 그리 많이 꾸지 않게 되었지요.

이렇게 업장을 받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꾸짖으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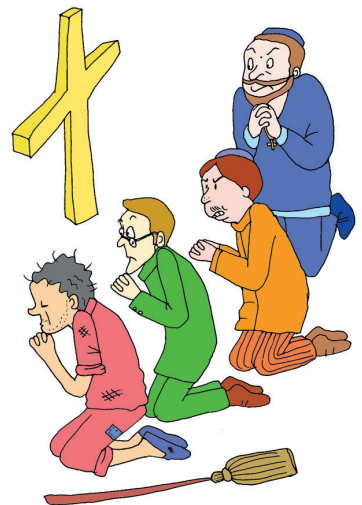
리의 업장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야단 맞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나무랄 사람이 없거나 어느 누구도 꾸짖을 만한 애정이 없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뒤죽박죽인 세상이죠!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편안하기보단 좀 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면 다른 쪽이 불편해집니다. 이를테면 정신적인 면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가 편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 편하면 우리의 자비심이 커지기 어렵고 지혜가 열리기 어려우며 복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하찮은 사람의 자격이 없다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7.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4

대주교가 어떤 교회를 시찰하다가 갑자기 감동에 복받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주교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보잘것 하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주교와 주교가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교회의 목사 역시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그때 옆에서 바닥을 쓸고 있던 교회 문지기가 그 모양을 보고는 덩달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문지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을 보게나. 감히 자길 하찮다고 하다니!” 정말 ‘겸손’하기 짝이 없는 대주교지요!



2003년 9월 12일 밤, 한국인들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を 쇠는 동안 한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사상 최고 속도의 강풍, 131명 사망, 재산 피해 4조 원, 대규모 정전 사태, 수천 개의 건물 파손 등 각종 기록을 남겼다. 특히 작년 태풍 루사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또다시 덮친 이번 태풍으로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마저 파괴되자 넋을 잃었다.

## 대한민국 소식

# 잔인한 매미, 사랑의 동포애

(원문 한국어)

자비로운 스승님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위로하고자 태풍 다음날 즉각 5만 달러를 한국에 보내 주셨다. 이 이재민을 염려하시는 청하이 스승님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재난 구호 팀과 전국 센터 동수들은 합심하여 구호 활동을 신속히 전개하였다.

동수들은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돕기 위해 부산 센터에 구호 본부를 설치하고 곧바로 현장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뉴스 보도, 인터넷, 현장 조사, 관공서 방문, 제보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태풍 피해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수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수들은 직접 수해현장을 찾아가 현장 구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경남 산청군 생비랑면

이곳은 주택이 지붕까지 침수되어 모든 가재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해 동수들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생수와 화장지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 경남 의령군 정곡면

9월 16일 오전, 구호품을 가득 실은 트럭과 함께 20여 명의 동수들이 경남 의령군을 찾았다. 결실을 맺어 황금 물결을 이루었어야 할 들판은 황량한 잿빛의 폐허로 변해 있었고, 침수로 파괴된 가옥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동수들을 반갑게 맞이한 정곡면 면장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동수들의 구호 활동을 안내해 주었다. 동수들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생필품을 전달해 주었고, 집안 청소 및 주변 정리를 함께 거들었다. 절망으로 굳어 있던 농민들은 자

신의 일처럼 밤늦게까지 정성껏 돕는 동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차차 마

음을 열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동수들은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구호 물품에 스승님의 잡지와 견본책자를 함께 넣어서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한 청년을 시각 장애인인 노인이 돌보고 있는 집이 있다는 말을 들은



동수들은 서둘러 그 집을 방문하였다. 우리가 방문할 당시 허름한 집구석에 30세 정도 되는 청년이 누워 있다가 맑고 총명한 눈길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구호 팀은 우리 단체가 수행 단체이며, 칭하이 스승님의 뜻에 따라 당신을 돕기 위해 왔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에게 수행의 목적, 스승님의 구도 과정,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명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더니 그는 명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울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손으로 견본책자를 읽기 위해 간간히 눈을 찼다. 그 가슴 아픈 광경을 본 우리가 그의 요청에 따라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명상을 계속했다. 동수들은 그가 불우한 처지에 있지만 스승님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해탈을 경험하게 된 것에 기뻐했다.



와 오물로 가득 찬 가구와 식기들을 깨끗이 씻고 정리해 주자 한결 기운을 되찾고 모습도 밝아졌다.

얼마 후 대지면장이 자필로 쓴 장문의 감사 편지를 부산 센터에 보내 왔다. (감사 편지 참고.)

## 가덕도

9월 19일에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부산 근교의 가덕도를 방문했다. 해일이 휩쓸고 간 참상은 배를 타고 가덕도로 가던 중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롭던 작은 섬은 쓰레기 하치장처럼 변해 있었으며, 군인들까지 와서 구호 활동을 돕고 있었다. 구호 활동에 나선 군인들은 섬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 마을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계속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섬의 많은 가구가 태풍으로 인한 해일로 풍비박산이 났으며 부분적으로 파괴된 집들도 부지기수였다.

대다수 주민들이 섬에서 대피한 상태였으며 그나마 남아 있던 주민들은 태풍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주민은 “내 50 생애에 이렇게 큰 재난은 처음 봅니다. 해일이 몽땅 다 쓸어가 버렸어요. 정말 삶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이 와 주셔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동수들은 해변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도왔다. 거꾸로 뒤집힌 배를 바로잡는 힘든 작업은 군인들과 함께 협력하기도 했



## 경남 합천군 삼가면

9월 17일 구호 팀은 경남 합천군 삼가면을 찾았다. 마을 전체가 지붕까지 침수되어 주방 도구, 이불 등 모든 것이 진흙과 쓰레기, 그리고 침수된 화장실의 오물 등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50여 명의 동수들이 침수된 가옥과 주변 환경을 자기 집처럼 헌신적으로 청소한 덕분에 주변 환경은 훨씬 나아졌다.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지면

9월 18일 동수들은 경남 창녕군 유어면과 대지면을 찾아갔다. 이곳의 침수 피해 상황 역시 분위기가 어둡고 침울했으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동수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들판의 쓰레기와 농작물을 정리하고 이불, 라면, 생필품 등을 유어면 27가구, 대지면 38가구에 전달하였다.

한 나이 든 아주머니는 이번 태풍으로 생의 의욕을 상실하고 의기소침해져 있었으나, 한 동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과 격려를 얻었고, 동수들이 악취

다. 해변을 청소하는 동안 동수들은 당신 자신을 '쓰레기 수집가' (주: 다른 사람의 업장을 수집한다는 의미)라고 칭하시는 스승님의 노고와 희생을 떠올렸으며, 외부의 쓰레기를 치우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청소하고 정화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가덕도

토요일인 20일에는 전국 각 센터에서 더 많은 동수들이 모여들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은 바다와 가까워서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매우 큰 지역 중 하나였다.



먼지와 모래가 섞인 강한 바람 때문에 눈뜨기도 어려운 가운데 동수들은 길과 들판에 널린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며칠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 있던 곡식들은 수확 철을 앞두고 모두 썩어 가고 있었다.

수확을 앞둔 파밭의 피해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망가진 논밭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 보려는 농민들을 도와 동수들은 파밭의 썩은 뿌리를 뽑고 작물을 다시 심는 작업을 함께 거들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가덕도로 자리를 옮긴 동수들은 『서울 장애인 신문』의 한 여기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딱한 처지의 장애인 가족을 소개해 주었다. 이 가족의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 동수들은 즉석에서 주머니를 털어 이들에게 전달했다. 우리가 모금한 돈을 건네준 뒤 다시 찾아오겠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자 깊이 감동한 부인은 격한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 자리에 있던 동수들과 이웃들도 모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에게 이 가족을 소개한 여기자는 『서울 장애인 신문』에 이 사연을 실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알렸다.

## 경남 창녕군 대지면/ 경남 의령군 정곡면, 지정면



9월 21일 일요일을 맞아 전국의 동수들이 대규모로 부산 센터에 집결했다. 원래 9월 14일과 28일에 안양과 서울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태풍 구호 작업에 힘을 모으기 위해 모든 행사를 취소시키고 철야 선 행사를 치르면서 재해 지역의 슬픔을 덜고자 했다.

철야 명상을 마친 120여 명의 동수들 중 51명으로 구성된 1조는 창녕군 대지면을 방문했고 나머지 73명은 경남 의령군으로 향했다. 양쪽 지역 모두 강이 범람하여 작물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상황이었지만 씩씩한 자원







봉사자들은 주민들과 함께 비닐 하우스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들판과 길, 언덕 등을 청소했다. 연일 계속된 구호 활동으로 인해 모두들 피곤에 지친 상태였지만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지원 속에서 계속 일해 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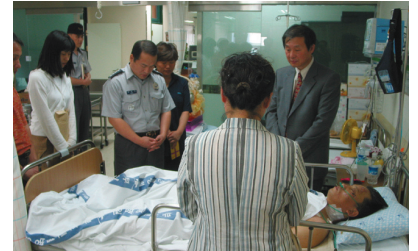
## 부상당한 소방관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보내다



동수들은 월요일인 22일 태풍 구호 활동 도중 부상당한 소방대원들이 소속된 부산 남부소방서를 방문해 서장 및 직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중상을 입은 두 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복귀해 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기리는 마음에서 우리는 위로금과 감사의 편지, 꽃다발, 초콜릿, 스승님의 출판물과 테이프 등을 정성껏 포장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소방서장은 이미 한국 관음법문 웹사이트를 통해 칭하이 스승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처

음 알고 놀랐다고 한다. 부산 센터 정창하 연락인은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재난이 일어났지만 다른 수재민들의 고통에 가려져 소방관의 숭고한 용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다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희가 다른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들은 스승님께서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부상당한 소방관들에게도 위로금을 전해 주셨고, 9.11 테러 당시에도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어 동수들은 소방서장의 안내에 따라 근처의 병원에 입원한 두 명의 중상자를 방문해 800만 원의 위로금과 손수 꾸민 과일 바구니, 스승님의 경서 등을 전달한 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원하며 잠시 명상했다. 함께 있던 가족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도 그들의 쾌유를 위해 함께 명상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했다.

9월 22일 아침 일찍 20여 명의 구호 팀은 태백시 철암동을 찾았다. 한때 국내 최대의 석탄 광산이었으나 지금은 폐광촌이 되어 버린 이곳은 이번 태풍으로 물이 불어나 가옥 대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게 처참히 부서져 버렸다. 강원도 산간 지방의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며 피해자와 구호 물품을





조사하는 데만 꼬박 나흘이 걸렸다.

구호 팀은 삼척시 가곡면, 태백시 철암동, 경북 소천면 등지의 수재민들에게 쌀과 생필품, 내복과 담요 등을 전달했다.

이번 태풍 구호 활동 현장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평소 개인적인 습관에 묶이고 두뇌에 속아 사랑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 사실상 너무 많이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변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

이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며 남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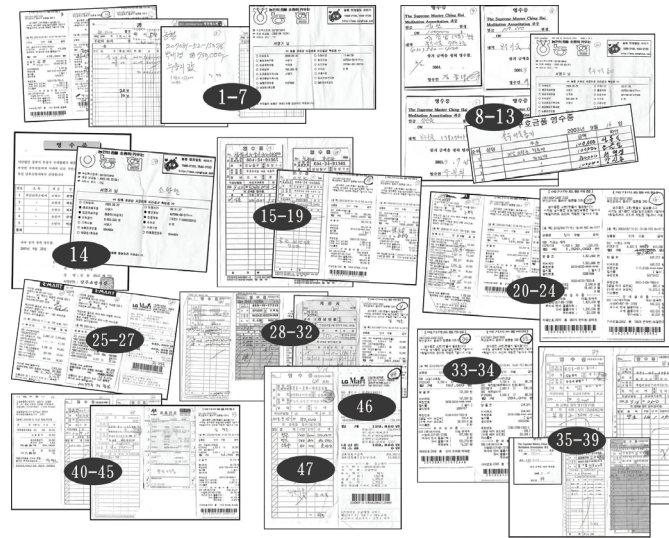


태풍 매미 구호 활동에 나선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

## 청하이 무상사의 태풍 매미 구호 활동 지원 지출 내역

(단위: 원)

항 목	금 액	영수증 번호
쌀	10,328,100	1-7
불우이웃 돕기 금일봉 전달	1,700,000	8-13
부상당한 소방관 금일봉 전달	8,000,000	14
이불	14,408,000	15-19
세제, 화장지, 수건 등 생필품	3,074,850	20-24
라면, 과자	3,578,900	25-27
속옷	6,020,000	28-32
양념류(된장, 고추장, 간장)	451,840	33-34
박스, 봉투	232,000	35-39
생수, 발전기 임대, 오일	368,200	40-45
가스 레인지	129,800	46
약품	350,000	47
총 액	48,641,690 (미화 42,300달러)	



## 대한민국 경남 도지사의 편지

(원문 한국어)

청하이 무상사 귀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김혁규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보내 주신 호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남겼지만 귀하께서 보내 주신 성금과 자원 봉사 활동으로 수재민들은 재기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응급 복구를 조기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여 수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아 생업 활동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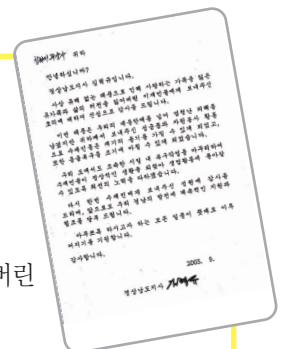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수재민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경남의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9.

경남 도지사 김혁규



## 대지면장의 편지

(원문 한국어)

### 정창하 연락인 귀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지면 재해 지역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물심양면의 지원과 아낌없는 봉사를 해주신 데 대해 저희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무어라 그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사와 성금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직접 서신까지 보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극하신 염려와 배려 덕분에 이제 가시적인 복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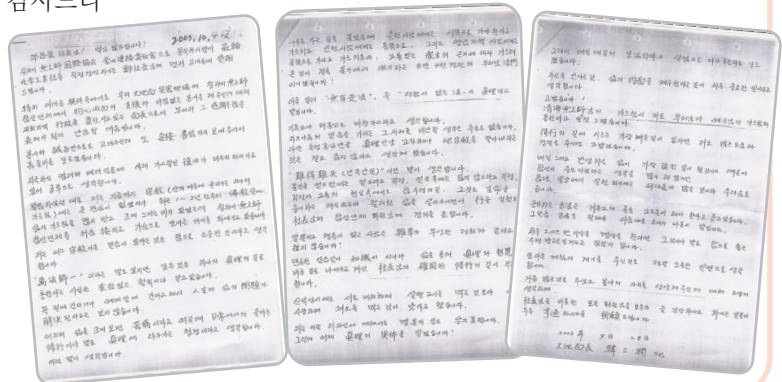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까지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최근 1, 2년 전부터 불교 쪽에서 삶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처음 접하고는 가슴에서 또 다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종교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법귀일(萬法歸一)’임을 믿습니다. 꼭 절에 간다거나 교회에 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삶을 크게 보면 고통이라고 여길 때 일상에서의 올바른 수행이야말로 진리에 다가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참 수행의 길, 그것도 생명을 중시하는 채식 위주의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행을 실천하시는 칭하이 무상사와 협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알음알이 지식이 아닌 삶을 통해 진리와 지혜의 바른길로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견고한 수행의 길이 부럽기만 합니다.

신약성서에도 서로 미워하며 살찐 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통한다고 일견 느꼈습니다. 수행의 길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과 경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2시간 반 이상을 명상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수행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깨달음의 계기를 주신 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큰 도움에 거듭 감사드리며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두루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9월 28일  
대지면장 한삼윤 드림





# 국경 넘어온 태풍 피해 구호

국제적 명상 단체 '칭하이 무상사' 5만 달러 한국 센터에 보내

부산 소방관 5명 위로금  
부산 남부 소방서에서 전달식  
피해 현장에 생필품 지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성금

부산일보 2003년 9월 23일자 30면  
(원문 한국어)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22일 오후 2시 부산 남부 소방서에서는 국제적인 명상 단체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부산 소방관 5명에 대한 위로금 전달식이 있었다. 정창하 연락인 등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한국 센터 관계자들이 이날 전달한 위로금은 800만 원.

이 위로금은 칭하이 무상사가 미국에서 한국의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태풍 내습 다음날인 13일 수재민 구호와 부상자 위로를 위해 써 달라고 한국 센터로 송금한 미화 5만 달러 중 일부이다. 협회는 이번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 온 성금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품 전달과 복구 지원 등 물질상면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연락인은 “칭하이 무상사께서 태풍 다음날 성금을 보내 왔는데 당시에는 성금을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10년 전 구성된 협회 재난 관리 팀이 발로 뛰어 피해 현장을 찾아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협회는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 온 성금 5만 달러 중 4만 달러로 쌀과라면, 이불, 옷, 응급약품 등 생필품을 구입해 경남 산청과 창녕, 의령, 부산의 가덕도, 강원도 삼척과 태백 등 태풍 피해 지역으로 전달했다.

“강원도 태백의 철암 지역에서는 기온이 떨어져 수재민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회원들의 연락을 받고 긴급히 옷을 구입해 보내 주었습니다.” 협회 소속 한 회원의 설명이다.

구호품 전달 외에 협회는 회원들이 참가하는 복구 지원 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20일 가덕도 봉사, 21일에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서 전국 회원 129여 명이 참가하는 복구 활동을 펼쳤다.

협회의 이 같은 복구 활동은 지난 93년 칭하이 무상사가 각국 협회에 지시해 만들어진 재난 관리 팀이 큰 역할을 했다. 적십자사에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지의 난민 자원 봉사를 하기도 한 칭하이 무상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정창하 연락인이 부산 소방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사는 세계적인 재난에 대해 국경을 초월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부가 있는 대만의 재난 관리 팀은 수륙 양용차까지 구비하고 있을 정도라고 정창하 씨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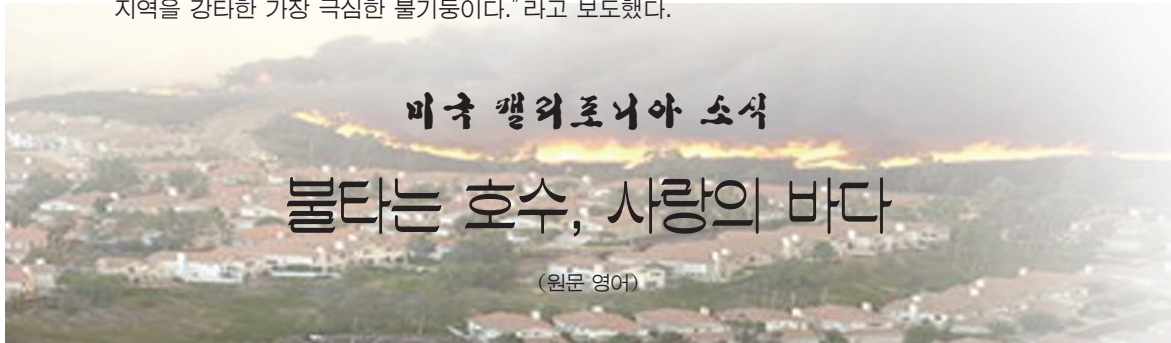
협회는 이번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앞서 96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올해 초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에도 복구 활동과 성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 태생인 칭하이 무상사는 프랑스 적십자사에서 자원 봉사를 한 뒤 출가, 티베트와 인도 등을 거쳐 히말라야에서 득도했다. 현재 전세계 67개국에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명상 센터가 있다.

한편 ‘무상사’는 도를 깨우친 최고의 스승이라는 뜻이다.

박기범 기자

2003년 10월 26일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디에이고, 샌베르나디노, 로스앤젤레스, 벤추라, 리버사이드 지역을 잇는 산불이 발생해 734,000 에이커가 넘는 산림이 파괴되고 20여 명이 사망, 3,57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기간 동안 한 샌디에이고 신문은 “이 화재는 33년 만에 이 지역을 강타한 가장 극심한 불기둥이다.”라고 보도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불타는 호수, 사랑의 바다

(원문 영어)

산불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샌디에이고 동수들은 곧바로 어떻게 구호 활동을 할 것인지 회의를 가졌다. 동수들은 당초 이재민 대피소에 병으로 된 생수를 제공하려 했으나 나중에 샌디에이고 당국에서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당부하고 소방서와 의료진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를 차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편 배달 차량의 운행도 허락되지 않은 마당이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의 긴박함을 절감한 우리는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활동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스승님의 내면의 인도를 받아 동수들은 샌디에이고 최대의 대피소로서 5천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퀄콤(Qualcomm) 체육관에 채식 샌드위치를 전달하기로 했다.

나중에 대피소 측에서 음식물 반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견지하면서 어떻게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샌디에이고 구호 팀’이라고 적힌 황록색의 조끼를 입



샌디에이고 최대 대피소인 퀄콤 체육관에 채식 샌드위치를 전달하다.

고 퀄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각 항목 검사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대피소에 있던 이재민들과 경비들의 환영 속에 음식물을 나눠 줄 곳을 안내 받고는 적십자사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가 대피자들을 위해 성금과 채식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기쁨과 놀라움을 표하며 우리 단체에 관해 많은 부분을 물었다. 그리고 우리의 성

금에 고마워하며 “여러분의 스승님께 대신 감사를 전해 주세요.” 하고 덧붙였다.

11월 초가 되자 보다 많은 샌디에이고 주민들이 집을 떠남에 따라 수만 명이 대피소로 몰려들었다. 동수들은 화재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해 구호 활동을 좀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기간 동안 오리건,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지의 센터에서도 관심 어린 이메일을 보내고 재정적인 지원도 약속해 주었다. 이에 샌디에이고 동수들은 큰 힘을 얻고 스승님께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랑을 화재 이재민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했다.

대부분의 대피소에서는 구호물자들이 넘쳐 나서 금전적인 지원만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밸리센

터 고등학교 대피소에서는 아직까지 구호물자를 반긴다는 정보를 접하곤 11월 2일 일요일 대량의 화장지와 생수 박스를 임대 트럭에 싣고 학교로 향했다.

밸리센터 고등학교는 샌디에이고 센터에서 북쪽으로 약 55마일, LA 센터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밸리센터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밸리센터 마을 인근은 가장 무서웠던 3대 화재 중 하나인 파라다이스 파이어의 불길과 인접해 있었다. 우리는 고등학교로 가던 중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 잿빛으로 변해 버린 거대한 계곡과 언덕, 산을 볼 수 있었다.

피난민들은 고등학교 체육관에 머물고 있었다. 적십자 대표들은 동수들을 반가이 맞이하며 이곳저곳을 안내했다. 또한 우리 단체의 로스앤젤레스 ‘예술과 영성’ TV 방송 제작 팀과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이어서 동수

들은 구호물자를 재빨리 창고로 옮겼다. 제작 팀은 이 모든 과정을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카메라에 담고 구호 팀원들과도 인터뷰를 했다. 구호 팀들은 인터뷰에서 스승님의 ‘자비의 행적’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동수는 다음처럼 답변했다. “여러분의 선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화재 이재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신께서 인류에게 사랑과 정을 소중히 여기고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 샌디에이고 동수들이 미화 4천 달러를 적십자사 대표(오른쪽)에게 전달하다.



감로법어

다른 사람을 존중할수록 우리의 에고와 아만, 교만심은 줄어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고귀해지고 총명해지며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흔들리기 쉬운 감정에서, 열등감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1989. 9. 24. 홍콩 (원문 중국어)



# 미국 오하이오 소식

## 스승님의 사랑이 노숙자 수용소의 기운을 바꾸다

(원문 영어)

약 7년 전부터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드롭 인(Drop Inn)’ 노숙자 수용소에 휴일마다 채식 식사를 제공해 왔다. 처음 수용소를 방문했을 당시 이곳 거주자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기색이 엿보였다. 알고 보니, 한 담당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동수들과 노숙자 수용소의 거주자 및 직원들이 스승님의 사랑으로 옹화되다.

직원과 노숙자 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 긴장감이 조성됨에 따라 분위기 전체가 매우 어두웠던 것이다. 그러나 동수들이 매년 이곳을 방문해 채식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과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자 시간이 흐르면서 스승님의 가피력이 차츰차츰 수용소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려 분위기가 한층 안정되고 우호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청하이 무상사’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모두들 스승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2003년 9월 24일 저녁,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드롭 인’ 수용소를 또 한 번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수용소 측에서 과거 자원 봉사자로 활동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한 만찬에 손님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동수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거주자는 “여러분이 언제나 오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며 반가이 맞아 주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즉시 오래된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한 거주자가 연주한 이 음악은 팝송에서부터 성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두루

망라했다. 어디서 배웠기에 그렇게 연주 솜씨가 뛰어나냐는 질문에 이 연주자는 교회 풍금 연주곡을 듣고 흥미가 생겨 일곱 살 때부터 낡은 음악책을 갖고 혼자 배웠다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때 우리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저녁 식사

후에 계속된 거주자들의 공연에서는 그들의 재능이 한껏 표출되었다. 공연이 전문가 수준이어서 우리는 마치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타를 가지고 나와 청중들 앞에 사뿐히 앉은 한 남자의 경우, 손가락이 기타 줄을 건드리자마자 수줍어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천국의 음악 같은 선율이 춤을 추었으며 마치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듯했다. 손님들은 모두 그의 멋진 연주에 큰 박수갈채로 보답했다.

이어서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정감이 넘치는 컨트리 곡을 연주했다. 그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가사는 대자연 속에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내용이었다. 또 한 남자는 농담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우리 동수 중 한 사람은 그 농담이 예전에 스승님이 하셨던 얘기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도독과 ‘예수’라는 이름의 개 이야기. 128호 ‘스승님의 농담’ 참고.) 그의 재미있는 농담에 청중들은 큰소리로 웃음을 터트렸으며 그 순간 수용소 전체에는 행복한 기운이 퍼져 나

갔다.

공연이 끝난 후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앞으로 전달된 감사장을 받았다. 동수들은 무한한 영광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롭 인’을 떠나면서 노숙자들이 물질적인 부는 가진 게 없지만 성심성의를 다해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신이 주신 재능을 펼쳐 보였다는 것을 느꼈다.

‘드롭 인’ 노숙자 수용소에서 저녁을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찢짤이 읽고 있는 드롭 인의 직원.

보내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기운이 변하면서 노숙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다. 매년 이 수용소 방문을 통해 우리는 전세계 곳곳에 스승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지상의 모든 이들이 스승님의 가피력으로 고양됨으로써 신의 은총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수용소 거주자들의 뛰어난 재능이 돋보인 공연들에 박수갈채가 쏟아지다.



수용소에서 전달한 감사장.



감로법어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사랑도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목적입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자비롭게 하고 더 관대해지게 하며 더 이해하게 합니다. 그것이 수행을 하는 최고의 성과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3. 4. 7. 미국 시애틀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48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

751 <중국어, 영어 + 중국어, 영어 자막>

불퇴보살

2003. 2. 23. 스승님과 시후 장주들의 전화 회의

710 <중국어, 영어, 한국어 사회 + 영어, 중국어 자막 > 2CD

스승님 생신 축하 공연

2000. 5. 14. 한국 영동

611 <중국어 + 자막 없음>

참 스승의 영원한 보살핌

1997. 12. 24.-27. 미국 워싱턴 국제 선사

571 <영어, 중국어 + 영어, 중국어 자막>

살아 있는 스승의 진정한 화신

1996. 12. 29.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크리스마스 국제 선오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

CD-CL02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692)

내면의 본성에 귀기울이기

2000. 5. 5. 포모사 타오위안 강연

CL-CL03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695)

지성과 영성의 교류

2000. 5. 6. 포모사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VCD ♣

752 <어울락어>

사랑의 만남

2002. 9. 15. 어울락 동수들과의 화상 회의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는 라디오·인터넷 방송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라디오·웹 팀 (원문 영어)

현재 어울락에 살고 있는 본토 어울락민은 8천만. 이외에 전세계 각지에 2백만 명이 어울락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광범위한 청취자들의 격려 속에 산호세 센터 어울락 라디오·웹 팀 동수들은 서로 협력하여 일주일에 세 번 있는 라디오 방송과 24시간 접속 가능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스승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Cau Thong Voi Thuong De는 어울락어로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이란 뜻이다.)

이 대중적인 사이트는 이해하기 쉬운 스승님의 어울락어 강연을 오디오로 방송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아프리카, 어울락, 오스트리아, 중국, 폴란드, 호주, 홍콩 등 각지의 방문자 수가 한 달 평균 4천 명에 이른다. 현재 어울락에서도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어울락 전역의 동포들도 인터넷을 통해 스승님이 전해 주신 관음법문과 내용이 풍부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트를 찾은 많은 방문자들은 방명록이나 이메일을 통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귀중한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우리 프로그램의 열렬한 애청자인 응우옌 두 씨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얼마 전 스승님께 전해 달라며 그림을 한 점 보내 왔다. '철학자들'이란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응우옌 씨의 그림에선 아리스토텔레스, 석가모니 부처, 노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림 맨 위에 보이는 상징물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불성, 도, 힌두교의 브라마, 이슬람교의 알라 등으로 불리는 신(神)이 특정 종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밝힌 응우옌 씨는 칭하이 스승님께 헌정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이 젊은 예술가는 스승님의 유머 감각에 이끌렸으며 스승님에게서 '친근함과 인연'을 느낀다고 답했다.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첨단 도구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어울락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고 살아 있는 스승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다.

전세계 센터 중 자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센터는 RadioAulac@yahoo.com으로 연락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산호세 라디오·웹 팀은 캘리포니아 외에 텍사스, 플로리다, 캐나다 등지의 동수들과 연합해 6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방송하고 있다.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오타와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토론토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케이프타운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더반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센터	228-4-410-948	
팔리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캄팔라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부에노스아이레스			
★ 볼리비아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산타크루즈	Mr. Wu Chao Shien	591-4625964	
트리니다드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 브라질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벨렘			
레시페			
상파울루			
★ 캐나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런던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center@adatel.net.mx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shinemound@earthlink.net
★ 미국					
★ 에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미시간 :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odj@cox-internet.com	미네소타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캘리포니아 :			미주리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플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네바다 :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KHOALUONG@aol.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1-415-753-2922 Mr. & Mrs. Khoa Dang Luong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오리건 :		
★ 플로리다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펜실베이니아 :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오클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텍사스 :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 켄터키 :	센터	1-502-695-7257 kycenter2000@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_le@sbcglobal.net
★ 매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 메사추세츠 :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베지니아 :	센터	lethong@hotmail.com	★ 일본		
	Mr. & Mrs. Hua Phi Anh	1-703-941-0067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1-703-978-6791		divinalv@mtb.biglobe.ne.jp	
*베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anhhlly@hotmail.com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1-757-588-8468		tateyama_lg@yahoo.co.jp	
		davidkyoung@hotmail.com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워싱턴 :				cal13840@pop07.odn.ne.jp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benptran@aol.com		y-plus@f6.dion.ne.jp	
	Mr. Edward Tan	1-206-228-8988	★ 한국		
		edtan@usa.com	출판사		031-772-9250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chinghai@unitel.co.kr	
		sumaemc@yahoo.com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 푸에르토리코				houmril@kornet.net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disnalda@caribe.net		quanyim@unitel.co.kr	
				유테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아시아***				chinghaibusan@hanmail.net	
★ 포모사				송호준	051-957-4552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황상원	051-805-7283
		tpe.light@msn.hinet.net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c5824@hanmail.net	
		shloh@ndmctsg.hk.edu.tw		신현창	063-254-5824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Mr. Chu, Chen Pei	886-37-724726		이재문	032-244-1250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 홍콩	센터	852-27495534		chinghaidaegu@hanmail.net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김익현	053-633-3346
		joyandlove3@hotmail.com		한선희	053-767-5338
★ 인도				차재현	053-856-3849
मुंबई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trust_god@rediffmail.com		김수동	042-254-7309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shive@cal.vsnl.net.in		조명대	061-394-6552
★ 인도네시아				smgwangju@naver.com	
발리	센터	62-361-231-040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smch_bali@yahoo.com		김삼태	054-821-3043
	Mr. Agus Wibawa	62-81-855-8001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wibawa001@yahoo.com	★ 마카오	센터	853-532231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acau_center@email.com	
		smch-jkt@dnnet.net.id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Mr. Tai Eng Chew	62-21-6319061	★ 말레이시아		
	Ms. Lie Ik Chin	62-21-6510218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financel@uei.com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supreme2@tm.net.my	
		hai@cbn.net.id	팔라렘푸르	센터	603-9287-3904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lsmch@tm.net.my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irn_up@yahoo.com		klgcp@hotmail.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페낭	센터	6-018-2413832
		yudi_wartono@telkom.net		pgsmch@pd.jaring.my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 몽골		
		smch_medan@hotmail.com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baasandamba@yahoo.com	
		ahimsasb@indosat.net.id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Mr. Harry	62-31-594-5868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harry_1@sby.dnet.net.id	★ 네팔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t.adianingtyas@eudoramail.com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Mr. Ajay Shrestha	977-1-473558
		ya05@netvision.net.il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pureocean@web.de
		neupanebishnu@hotmail.com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Mr. Shiva Bastola	977-61-28255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49-174-5265242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ngoc-thao.nguyen@gmx.de
		manilach@hotmail.com		dusseldorfcenter@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chinghai@singnet.com.sg			HamburgCenter@gmx.de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 스리랑카					ChingHai@aol.com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Ms. Kang Cheng	49-89-3616347
		lawrance@thefinance.lk			love_source@t-online.de
★ 태국			★ 그리스		
방콕	센터	662-674-2690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bkk_c@hotmail.com			Razahidah@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 네덜란드		
		66-2-5914571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edasnlad@samsorn.stou.ac.th			m.mannaart@planet.nl
	Mr. Wu Peir Yuan	66-1-8248294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4128	★ 헝가리		vo-khong@wanadoo.nl
콘캔	센터	66-43-378112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송크라	센터	66-74-447224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4273364
				Ms. Dora Seres	36-1379-1924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유럽 ***			기요르		
★ 오스트리아			★ 아일랜드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bernardleech2003@yahoo.co.uk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 노르웨이		
		sound@gmx.at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 벨기에					norwayqy@online.no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 폴란드		
		gotske@yahoo.fr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 불가리아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quanyin_pl@yahoo.com
		oldruslan@yahoo.com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플로르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zakra@interia.pl
		chinghaiplovdiv@mail.bg	★ 포르투갈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zeljko@mindless.com			lisbon_center@yahoo.com
★ 체코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alcoa_center@hotmail.com
		prague-center@chinghai.cz	★ 러시아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Chinghai@chinghai.cz			boulgakov@tri-el.ru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my@webspeed.dk			dbk@siol.net
★ 핀란드			★ 스페인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hoanghanh@jippii.fi			Madridcenter@yahoo.es
	Ms. Anne Nystrom	358-9-793902		Ms. Lidia Kong	34-91-5470366
		anne.nystrom@kolumbus.fi		Mr. Wang Ya-King	34-95-2351521
★ 프랑스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말라가	Mr. Yu Xi-Qi	34-96-3347061
		arclai@infonie.fr	발렌시아		valenciachinghai@yahoo.es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 스웨덴		
		tich.hung@infonie.fr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오레		are.sweden@post.utfors.se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 독일					



스톡홀름	Mr. Mats Gigard	john.wu@bolina.hsb.se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 스위스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 영국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센터	61-8-9242-1189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스토코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Mr. Ly Van Tri	61-8-9244-7661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스코틀랜드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뉴질랜드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오세아니아 ***					
★ 호주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extra.co.nz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마이런베이/					

##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l@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바칩니다.

## 당신은 사랑의 바다

사랑하는 나의 위대하신 스승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로 다 못 합니다  
저는 길 잃은 당신의 자녀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위대하신 스승님  
스승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위험에서 저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제가 이생을 떠난 후엔 해탈로 인도하십니다

스승님이 화현하실 때마다  
순백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사랑의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스승님이 화현하실 때마다  
천국의 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고  
교회의 종소리가  
가만히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 소리는 참된 기적  
내면의 삶을 정화하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며  
모든 고통을 멀리 물리칩니다

매년 칭하이 데이가 되면  
우리 제자들은  
스승님의 위대하신 공덕을 기쁜 마음으로 기립니다

우리,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스승님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구상에 영원토록 머무시고  
우리를 윤희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두옹 티 산 시저/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 2003년 S.M. 추동복 컬렉션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내면과 외면 모든 면에서  
진선미를 갖춘  
사람이 되라!





내면의 보이지 않는 연결

## 천국의 영감

### 천상의 보석에 담긴 오묘한 의미

칭하이 무상사의 천상의 영감으로 태어난

천상의 보석이 지상에 내려와

노련한 장인의 손길을 통해

세인들을 놀래다.

흙 값을 데 없는 진주와 옥은 영광스레 빛나고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세공된 금은

보는 이의 눈을 황홀케 한다.

작품마다 담긴 그 특별한 의미가 가슴에 새겨진다.

우주의 오묘한 지혜를 전하는

칭하이 무상사의 디자인은

모든 인류의 영혼과 생명력을 일깨운다.

미래불

지혜안

작은 천사

명상하는 관음보살

보리달마

(이번 호 18페이지를 보시면 파리 국제 보석  
전에서 파리 Bijorcha TV와 가진 칭하이 무상사  
의 멋진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